



정답과 해설

중학교

국어 1-1

박영민 외

갈래 익히기

시

6~7쪽

- 1 (1) ○ (2) × (3) ○ 2 (1) 내재율 (2) 반복 (3) 의태어
3 ① 4 정서 5 (1) ㉠ (2) ㉡ (3) ㉢ (4) ㉣ 6 ⑤

- 1 (1) 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정서와 생각, 느낌 등을 운율이 있는 말로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다.
(2)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은 운율이다. 음운은 ‘물’, ‘불’에서 ‘ㄹ’과 ‘ㅂ’ 따위를 의미한다.
(3) 운율은 리듬감을 부여하여 시를 읽는 즐거움을 주고, 시의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해 준다. 또한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 2 (1) 규칙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시의 내면에서 은근하게 느껴지는 운율은 내재율이다. 반대로 겉으로 규칙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운율은 외재율이다.
(2) 시의 운율은 같거나 유사한 소리, 단어나 문장 구조 등이 반복되어 만들어진다.
(3) 운율의 형성 방법에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풀풀’은 눈이나 먼지, 연기 따위가 몹시 흩날리는 모양을 흉내 내는 말로서 의태어에 해당한다.
- 3 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정서나 생각을 음악성이 있는 말로 압축하여 표현하는 문학의 한 갈래이다. 시를 읽으면 말의 가락 즉, 운율이 느껴지며, 이 운율을 통해 시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주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갈등을 통해 내용이 전개되는 것은 소설이나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다.
- 4 시에서 말하는 이는 상황과 정서, 태도를 가진다. 말하는 이가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은 말하는 이의 정서에 해당한다.
- 5 (1)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식으로 원관념인 ‘내 마음’과 보조 관념인 ‘호수’를 직접 연결하는 말 없이 표현하는 은유가 사용되었다.
(2)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인 ‘태양’이 살아 있는 것처럼 ‘나’를 쳐다본다고 표현하는 활유가 사용되었다.
(3) ‘처럼’을 사용하여 원관념인 ‘하얀 강아지’를 보조 관념인 ‘솜사탕’과 직접 연결하여 표현하는 직유가 사용되었다.
(4) 사람이 아닌 사물인 ‘샘물’이 사람처럼 ‘웃으며 간다.’라고 표현하는 의인이 사용되었다.
- 6 상징은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념 또는 사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상징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인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으며, 원관념을 대신 나타내는 구체적 대상만 겉으로 드러난다.
② ‘땀’을 ‘풍요’의 상징으로 보는 것은 민족과 시대를 초월하여 어떤 자연물에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원형적 상징에 해당한다.

- ③ 상징의 종류에는 관습적 상징, 원형적 상징, 개인적 상징이 있으며, 상징의 특성에 따라 그 종류가 나누어진다.
④ 관습적 상징은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관습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보편화된 상징을 의미한다.

소설

8~9쪽

- 1 (1) × (2) × (3) ○ 2 (1) 발단 (2) 절정 (3) 갈등
3 ① 4 (1) 1인칭 관찰자 (2) 직접적
5 1인칭 주인공 시점 6 ①

- 1 (1) 소설은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이야기이며, 직접 체험한 내용을 자유롭게 쓴 글은 수필에 해당한다.
(2) 소설은 사실 그대로가 아닌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에서 허구성을 지니고 있다. 진실성은 꾸며낸 이야기이지만 인생의 진실을 추구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3)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사건이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는 점에서 서사성을 지니고 있다.
- 2 (1) 발단은 소설의 구성 단계 중 첫 번째 단계로,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나는 단계이다.
(2)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소설의 구성 단계는 절정이다.
(3) 결말은 소설의 구성 단계 중 마지막 단계로, 소설의 전개 과정에서 심화되었던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된다.
- 3 소설의 3요소는 작품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인 ‘주제’,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배열하는 ‘구성’, 작가의 개성적이고 독특한 문장 표현인 ‘문체’이다. ‘인물’은 소설 구성의 3요소 중 하나이다.
- 4 (1) ‘나’가 주인공을 관찰하며 그의 행동이나 사건을 서술하는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주인공의 심리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2) ‘수남이는 그날 온종일 우울했다.’는 서술자가 등장인물 ‘수남’이 느끼는 우울함을 직접 설명해 주고 있으므로 직접적 제시에 해당한다.
- 5 ‘나’가 직접 등장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으며 약이 올라 분노를 느끼는 ‘나’의 심리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6 제시된 장면에서는 낮에 자신이 한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아닌지 인물이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데, 판단이 자꾸 뒤바뀌며 내적 갈등을 보이고 있다.

시나리오

10쪽

1 (1) 영화 (2) 장면 (3) 등장인물 2 지시문 3 ④

- (1)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 상영을 목적으로 하여 쓴 대본으로, 영상을 찍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2) 시나리오는 장면(Scene)을 단위로 구성되며, 시나리오 안에서 장면은 S#(Scene Number)로 표시한다.
(3)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는 해설, 장면, 대사, 지시문이 있다. 이 중 해설은 시나리오의 첫머리에서 배경이나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부분이다.
- 밀줄 친 부분은 인물의 표정이나 동작 등을 지시하는 부분인 지시문에 해당한다. 인물의 표정, 동작뿐만 아니라 무대 장치, 카메라 위치, 필름 편집 기술 등을 지시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 '하강'은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는 단계이다.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시나리오의 구성 단계 중 마지막인 '대단원'에 해당한다.

수필

11쪽

1 (1) × (2) ○ (3) ○

2 (1) 중수필 (2) 글쓰기 (3) 독자 3 ④

- (1) 수필은 전문 작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전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수필은 글쓴이 자신의 관심사나 가치관, 문체 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개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수필은 글쓰기가 생활 속에서 얻은 생각이나 느낌을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이다.
- (1) 사회적인 문제나 관심거리에 대한 무거운 내용을 주제로 쓰는 수필은 중수필이다. 반면 경수필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일들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가볍게 쓴 수필이다.
(2) 소설은 작품 속의 '나'가 소설의 인물이지만, 수필은 작품 속의 '나'가 글쓴이 자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수필과 소설은 모두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한 산문 문학이다. 또한 독자에게 교훈과 감동을 준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 정보를 쉽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설명하는 글이다. 수필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정해진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쓴 글로, 생활 속에서 글쓴이가 체험하거나 생각한 모든 것이 수필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설명하는 글

12쪽

1 (1) ○ (2) × (3) × 2 사실성 3 ①

- (1) 설명하는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 대상을 밝히고, 글을 쓴 동기와 목적, 방향 등을 제시한다.
(2) 설명하는 글의 '가운데' 부분에서는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사실이나 정보를 제시한다.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은 '끝' 부분이다.
(3) '끝' 부분에서 독자에게 당부할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글을 쓴 동기는 '처음' 부분에서 밝혀야 한다.
- 설명하는 글은 객관성, 사실성, 체계성, 평이성, 명료성의 특성을 가진다. 정확한 정보나 지식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은 사실성이다.
- ㉠은 '인터넷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설명 대상의 개념이나 용어의 뜻을 밝혀 규정하는 정의에 해당한다. ㉡은 '청소년어'는 '청소년'이, '기성세대 언어'는 '나이가 든 어른'이 주로 사용한다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대조에 해당한다.

기사문, 매체

13쪽

1 (1) 육하원칙 (2) 공정성 2 부제 3 ①

- (1) 기사문은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쓴 글이다. 육하원칙이란 기사문의 문장을 쓸 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여섯 가지를 이룬다.
(2)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시각에 치우치지 않게 중립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기사문의 특성 중 공정성에 해당한다.
- 기사문은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로 구성되며, 밀줄 친 부분은 표제에 덧붙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작은 제목인 부제에 해당한다.
- 신문은 문자 언어와 사진을 중심으로 정보를 구성하여 전달하는 매체이다.
오답 풀이 ② 책은 정보 제공의 속도가 떨어지지만,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다.
③ 누구든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될 수 있는 매체는 인터넷이다.
④ 인터넷은 누구든 정보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타당성과 정확성, 신뢰성 등을 따져 보며 수용해야 하는 매체이다.
⑤ 신문과 텔레비전은 다수의 대중에게 같은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지만, 책은 정보 제공의 속도가 느린 편이다.

1 문학과 매체로 여는 소통의 창

01 깊이 감상하고 넓게 표현하기

소단원 한눈에 보기

18~19쪽

- 1 (1) 반복 (2) 리듬감 (3) 주제
2 (1) ○ (2) ○ (3) ×
3 (1) 직유 (2) 의인
4 (1) × (2) × (3) ○ (4) ○
5 (1) 길 (2) 고개 (3) 마을 (4) 추상적

제재 ① 「봄날 아침」

스스로 확인하기

22~23쪽

- (1) × (2) 피아노

내용 확인 문제

22~23쪽

- 1 ③ 2 ④ 3 활용 4 ②

- 1 이 시는 같거나 유사한 소리, 단어나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한 행을 일정한 단위로 끊어 읽는 음보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봄날 아침이라는 계절적,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② ‘종종’, ‘톡톡’, ‘팔짝팔짝’, ‘물물’과 같은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고 있다.

④ 봄날 아침의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하며 말하는 이의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⑤ ‘가장’, ‘고운’, ‘노래’와 같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골라 -버니다, -만 -(어/아)다닙니다’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2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직접 연결하는 말 없이 ‘무엇은 무엇이다’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시의 ‘즐거운 노래가 톡톡 튕겨 나옵니다.’는 나뭇가지에서 튕겨 나오는 빗방울의 모습(원관념)을 직접 연결하는 말 없이 ‘즐거운 노래(보조 관념)’에 비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에는 비유가 사용되지 않았다.

② 참새가 빗방울을 쫓는 모습(원관념)을 피아노를 치는 모습(보조 관념)에 비유한 것으로 직유가 사용되었다.

③ ‘고운 노래’가 마치 살아 있는 대상인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활유가 사용되었다.

⑤ ‘기쁜 일’이 마치 살아 있는 대상인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활유가 사용되었다.

- 3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인 ‘고운 노래’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날아다닌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비유의 종류 중 활유에 해당한다.

- 4 비유는 표현하려는 대상(원관념)을 그와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다른 대상(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비유를 사용하면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더 참신하고 생생하게 대상의 특징을 전달할 수 있으며,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이고 인상 깊게 드러낼 수 있다. 비유는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주제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활동 응용 문제

24~27쪽

- 1 ③ 2 피아노 치듯 종종 놀러 옵니다. 3 ①
4 ⑤ 5 ③

- 1 이 시는 봄날 아침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참새들은 가장 고운 것을 골라 / 피아노 치듯 종종 놀러 옵니다.’라는 시구는 참새가 빗방울을 쫓는 모습을 피아노 치는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한 소녀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간밤에 봄비가 내린 후 아침의 풍경을 담고 있다.

② 2연에서 참새들이 빗방울을 쫓는 장면을 피아노 치는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④ 1연에서 빗방울을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았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나뭇가지에 빗방울이 맺혀 있는 장면이 나타난다.

⑤ 2연에서 ‘즐거운 노래가 톡톡 튕겨 나옵니다.’라고 한 것은 나뭇가지에서 빗방울이 튕겨 나오는 장면을 나타낸다.

- 2 참새가 빗방울을 쫓는 모습을 피아노를 치는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시행은 ‘피아노 치듯 종종 놀러 옵니다.’이다. 이는 대상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모양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직유를 활용하여 비유한 것이다.

- 3 비유는 표현하려는 대상(원관념)을 그와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다른 대상(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비유를 사용하면 대상을 더 참신하고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은 비유가 아닌 상징이다.

4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으로, 같거나 유사한 소리, 단어나 문장 구조 등이 반복되어 만들어진다.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은 운율이 아니라 비유의 종류 중 하나인 의인에 해당한다.

5 '멀리 날아가는 비둘기'라는 문장에서는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사람이 아닌 대상인 '바다'를 사람처럼 운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비유의 종류 중 의인에 해당한다.
 - ② '달'의 둥근 모습을 '쟁반'의 둥근 모습에 빗대어 '같이'로 직접 연결하고 있으므로 비유의 종류 중 직유에 해당한다.
 - ④ '그'의 교활한 성격을 '여우'의 교활한 성격에 빗대어 '처럼'으로 직접 연결하고 있으므로 비유의 종류 중 직유에 해당한다.
 - ⑤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인 '청산'을 살아 있는 대상인 것처럼 짓을 친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비유의 종류 중 활유에 해당한다.

제2 「새로운 길」

스스로 확인하기

28~29쪽

(1) 길 (2) ○ (3) ○ (4) ×

내용 확인 문제

28~29쪽

1 ⑤ 2 ③ 3 ②

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숲'과 '마을'을 향해 길을 걸어가며 다양한 존재를 만나고 있다. 따라서 말하는 이가 과거에 만난 다양한 존재를 회상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말하는 이는 '내'와 '고개'를 지나 '숲'과 '마을'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살면서 만나는 고난과 시련을 지나 희망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이 시는 3연을 기준으로 1, 5연과 2, 4연이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다.
 - ③ 말하는 이는 어제, 오늘도, 내일도 길을 걸어가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마침표 대신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2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따라서 말하는 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지적 태도이다.

- 오답 풀이**
- ① 체념적 태도는 품었던 생각이나 기대, 희망 따위를 아주 버리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 ② 비판적 태도는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태도를 말한다.

④ 회의적 태도는 어떤 일에 의심을 품는 태도를 말한다.

⑤ 방관적 태도는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는 태도를 말한다.

3 이 시는 인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길'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시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마을'은 말하는 이가 향하고 있는 곳으로 희망과 평화를 상징한다.

활동 응용 문제

30~33쪽

1 ③ 2 ③ 3 ⑤ 4 빨래 건조대 5 ④

1 이 시는 '길'이라는 상징적 시어를 활용하여 삶을 살아가는 의지적 자세를 표현하고 있다. 말하는 이는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태도로 길을 걷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말하는 이가 향하는 '숲'과 '마을'은 희망과 평화를 의미한다.
 - ② 말하는 이가 지나가는 '내'와 '고개'는 살면서 만나는 시련을 의미한다.
 - ④ 말하는 이가 마주치는 '민들레', '까치'는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말하는 이는 희망적,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적 태도는 드러내지 않는다.

2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길'은 인생, 삶을 의미한다. 시어 '길'의 의미와 시의 내용을 통해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전달하고 있다.

3 상징은 표현하려는 추상적인 개념(원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보조 관념)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상징은 원관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4 이 시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사춘기의 마음과 생각을 빨래가 나란히 걸려 있는 '빨래 건조대'와 쓰다 남은 색종이들이 모여 있는 '미술 시간 후 책상'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5 운율, 비유, 상징을 활용하여 창작한 시를 점검할 때는 이러한 표현이 적절하게 잘 드러나는지, 시의 제재를 생생하고 참신하게 표현했는지, 주제를 일관되게 전달하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단어를 사전적 의미대로 사용하였다면 문학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점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해력 키우기

35쪽

- 1 반복 2 문학 3 효과 4 표현 5 반영한다
6 공유하고 7 빗대어 8 형성할 9 서정적 10 추상적
11 구체적 12 창의적

확인 문제

37쪽

- 1 ○ 2 × 3 ○ 4 × 5 내, 고개 6 여운
7 새로운 8 활유 9 길, 시련 10 수미상관

발전 활동 「파랑새」

스스로 확인하기

38~40쪽

- (1) 집 (2) 파랑새 (3) ×

내용 확인 문제

38~40쪽

- 1 ② 2 ②

- 1 “파랑새예요! 파랑새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라고 한 티틸의 말로 미루어 보아, 집에서 ‘파랑새’를 찾아낸 것은 엄마와 아빠가 아니라 티틸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웃집 할머니가 소녀의 안부를 묻는 엄마의 말에 “휴, 병이 낫지를 않아서 걱정이예요.”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웃집 할머니에게 아픈 소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파랑새’가 소녀의 손에서 빠져 나가 날아간 뒤에 티틸은 소녀를 달래며 진짜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가 멀리 있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티틸은 ‘파랑새’가 날아간 것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티틸이 “할머니, 죄송해요. 파랑새를 찾지 못했어요.”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티틸과 미틸이 모험에서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⑤ 티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찾은 후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엄마, 아빠. 우리 집이 훨씬 아름다워졌어요.”라고 말한다. 따라서 티틸과 미틸이 화려한 다른 집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티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찾기 위해 모험을 했지만 결국 집에서 ‘파랑새’를 발견한다. 이 과정에서 티틸은 진짜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이 글은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활동 응용 문제

41쪽

- 1 ① 2 행복

- 1 티틸이 “할머니, 죄송해요. 파랑새를 찾지 못했어요.”라고 한 것과 집에서 파랑새를 발견하고 좋아하는 모습 등으로 미루어 보아, 티틸과 미틸이 모험에서 ‘파랑새’를 찾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2 티틸과 미틸은 자신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집에 있음을 알게 되고, 마지막에 ‘파랑새’가 날아가 버렸음에도 슬퍼하지 않고 “진짜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거든.”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파랑새’는 ‘행복’을 상징하는 소재임을 알 수 있다.

소단원 평가

42~45쪽

- 01 ⑤ 02 ④ 03 ② 04 ③ 05 원관념은 참새가 빗방울을 쫓는 모습이고, 보조 관념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다.
06 ③ 07 ⑤ 08 ② 09 ⑤ 10 ⑤ 11 ②
12 ① 13 ⑤ 14 ③ 15 내, 고개 16 ⑤
17 ④ 18 ① 19 진정한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

- 01 이 시는 봄날 아침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로 아름다운 풍경을 대하는 말하는 이의 기쁜 마음이 드러나고 있을 뿐, 의지를 다지는 말하는 이의 자세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쫓쫓’, ‘톡톡’, ‘팔짝팔짝’, ‘풀풀’과 같은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며, 봄날 아침의 생동감을 담아내고 있다.
② ‘가장’, ‘고운’, ‘노래’라는 단어를 반복하거나, ‘-골라 -버니다’, ‘-만 - (어/아)다닙니다’의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이 시는 '피아노 치듯 종종 놀러 봅니다.'에서의 직유와 '즐거운 노래가 툭툭 튀겨 나옵니다.'에서의 은유 등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④ 영탄법을 사용하여 봄날 풍경에 대한 말하는 이의 기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02 이 시는 비가 그친 후 봄날 아침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비가 내리고 있는 산등성으로 참새들이 날아오르는 장면은 적절하지 않다.

03 이 시는 의성어·의태어의 사용, 단어와 문장 구조의 반복 등을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봄날 아침의 생기 넘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봄날 아침의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나. 운율은 리듬감을 형성하여 시를 읽는 즐거움을 주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내용에 사실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ㄹ.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상징으로, 운율의 효과와는 관련이 없다.

참고 자료

운율의 효과

- 리듬감을 느끼게 하여 시를 읽는 즐거움을 줌.
- 시의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해 줌.
-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도움을 줌.

04 [A]는 '팔짝팔짝', '폴폴'과 같은 의태어가 사용되었으며,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인 '기쁜 일'과 '고운 노래'를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활유가 사용되었다. [B]는 의태어가 나타나지 않으며, 비유도 사용되지 않았다. [C]는 '화알짝, 살랑살랑'과 같은 의태어가 사용되었으며, 사람이 아닌 대상인 '기쁜 일'과 '고운 노래'를 사람과 같이 미소 짓고 손을 흔드는 것처럼 표현하는 의인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B]와 달리 [A]는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을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봄날 아침 풍경을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은 비유가 사용된 [A]이다.

② [A]에는 활유가, [C]에는 의인이 사용되었으므로 [A]와 [C] 모두 비유적인 표현이 나타난다.

④ 의태어는 [A]와 [C]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다.

⑤ [C]는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이 사용되었으므로 말하는 이의 기쁜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5 ㉠은 '참새가 빗방울을 쫓는 모습(원관념)'을 '피아노를 치는 모습(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듯'과 같은 말로 직접 연결하여 표현하는 직유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비유를 활용하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더 참신하고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시의 주제와 분위기를 효과적이고 인상 깊게 전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비유의 종류

직유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말로 직접 연결하여 표현하는 방법 예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털
은유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직접 연결하는 말 없이 '무엇이 무엇이다'처럼 표현하는 방법 예 내 마음은 호수요.
활유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을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예 뿔뿔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의인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 예 나무들이 사위하고 있다.

06 이 시는 상징적 소재인 '길'을 사용하여 말하는 이의 의지적인 삶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길', '오늘' 등의 시어를 반복 사용하여 운율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3연을 기준으로 1, 5연과 2, 4연이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다.

오답 풀이 ㄷ. 말하는 이와 대립하는 존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07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어제, 오늘, 내일도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말하는 이가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8 이 시의 2연에서는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길을 쉬지 않고 나아가려는 말하는 이의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말하는 이가 지난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1연에서 말하는 이는 '내'와 '고개'를 지나 '숲'과 '마을'을 향해 길을 걸어가고 있다.

③ 3연에서는 '-가(이) -고'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4연에서는 '오늘도'와 '내일도' 뒤에 마침표 대신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⑤ 5연에서는 1연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주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수미상관

시에서 첫 번째 연이나 행을 마지막 연이나 행에 다시 반복하는 것으로, 시의 구조를 안정되게 만들며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음.

09 이 시에서 '길'은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인생을 의미한다. '길'은 과거를 지나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공간이며, 말하는 이는 길을 가는 도중에 '민들레', '까치' 등과 같은 다양한 존재를 만나기도 한다. '길'은 희망과 평화의 공간으로 가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며, 이 시에서 '숲'과 '마을'은 희망과 평화의 공간을 의미한다.

10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길을 걷다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존재는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이다.

11 (가)에서는 '가장', '고운', '노래' 등의 시어를 반복하고, (나)에서는 '길', '오늘'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첫 연과 마지막 연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수미쌍관의 구조는 (나)에만 나타난다.

③ (나)의 4연에서는 '오늘도', '내일도' 뒤에 마침표가 아닌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문장의 일부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여운을 주고 이를 통해 말하는 이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가)에서는 생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는 봄날 아침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며, (나)는 길에서 만나는 '민들레', '까치' 등과 같은 다양한 존재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연물의 특성에 대한 대조는 (가)와 (나) 모두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에서는 '쫄쫄', '톡톡', '팔짝팔짝', '풀풀'의 의성어·의태어를 활용하여 봄의 생기 넘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의성어·의태어를 활용하지 않는다.

12 (가)의 2연에서는 참새가 빗방울을 쫓는 모습을 피아노를 치는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뚝'으로 직접 연결한 직유가 사용되었다. 또한 나뭇가지에서 튕겨 나오는 빗방울의 모습을 즐거운 노래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직접 연결하는 말 없이 표현하는 은유가 사용되었다.

13 (가)의 3연에는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을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활유가 사용되었다. ⑤에서도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인 '어둠'이 살아 있는 것처럼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활유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속담으로, 본뜻은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풍유에 해당한다.

② '나'를 아름다운 '나비'에 직접 연결하는 말 없이 표현하는 은유에 해당한다.

③ '내 마음'을 '빨래 건조대'에 직접 연결하는 말 없이 표현하는 은유에 해당한다.

④ '나그네'의 행동을 구름에 달이 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으며, 이를 '뚝'으로 직접 연결하고 있으므로 직유에 해당한다.

14 (나)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상징이 나타나고 있다. (나)에서 '인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길'이라는 사물로 대신하여 표현한 것처럼 상징은 원관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 따라서 직접적인 공통점을 바탕으로 연결되는 것은 (나)에 나타난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참고 자료

상징의 효과

- 대상이 지닌 본래의 의미보다 풍부한 의미를 담을 수 있어 의미를 다양하고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음.
- 독자가 작품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15 <보기>에서 밑줄 친 '눈서리는' '술'(소나무)을 힘들게 하는 존재로 시련, 고난을 상징한다. (나)의 시어 중 시련, 고난을 상징하는 시어로는 '내', '고개'가 있다.

16 이 글은 '파랑새'를 찾아 헤매던 티틸과 미틸이 집 안에서 '파랑새'를 발견하는 내용으로 전개되며 '파랑새'로 인한 인물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티틸과 미틸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 모험을 하는 내용이다.

② 작품 밖의 서술자가 내용을 전달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글이 전개된다.

③ 티틸과 미틸이 '파랑새'를 찾기 위해 꿈속에서 모험을 하는 내용에서, 집으로 돌아와 '파랑새'를 찾는 과정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이 전개된다.

④ 꿈속에서 '파랑새'를 찾는다는 동화적인 이야기에 '진정한 행복'이라는 철학적 주제를 담고 있다.

17 (다)에서 티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해 할머니에게 미안해한다. 이후 (라)에서 '파랑새'를 찾자마자 깜짝 놀라며 할머니에게 준다. 또 할머니는 '파랑새'를 찾지 못해 미안하다는 아이들의 말에 알 듯 말 듯한 미소를 짓는데, 이는 할머니가 아이들이 '파랑새'를 찾기 위해 모험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머니가 티틸과 미틸이 '파랑새'를 숨기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엄마는 아이들이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말한다.

② (나)에서 티틸은 엄마 품으로 뛰어들며 오랜만이라고 한다.

③ (마)에서 소녀의 말을 통해 소녀는 파랑새가 날아가 버려서 속상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티틸은 할머니에게 '파랑새'를 찾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가, (라)에서 '파랑새'를 발견하고 할머니에게 주며 기뻐한다.

18 할머니는 자신의 아픈 손녀가 '파랑새'를 꼭 갖고 싶어 한다면 티틸과 미틸에게 '파랑새'를 찾아 달라고 부탁했었던 인물이다. 할머니가 알 듯 말 듯한 미소를 짓는 것은 티틸과 미틸의 모험을 이미 알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9 이 글에서 '파랑새'는 '행복'을 상징한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집에 있었다는 ㉠을 볼 때, 이 글의 주제는 진정한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주제는 (마)에서 티틸이 한 "진짜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거든."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파랑새」의 특징

-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전개됨.
- 동화적인 이야기 안에 철학적 주제를 담아냄.
- 추억, 행복, 미래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공간이나 인물 등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상징이 드러남.

02 상호 작용적 매체를 분석하기

소단원 한눈에 보기

48~49쪽

- 1 (1) 양방향 (2) 공간 (3) 실시간
- 2 (1) × (2) ○ (3) ○
- 3 (1) 누리집 (2) 소통 맥락
- 4 (1) × (2) ○ (3) ○
- 5 (1) 블로그 (2) 학교 누리집
- 6 (1) 방식 (2) 공개

활동 응용 문제

52~61쪽

- | | | | | |
|-----|-----|-----|-----|----------|
| 1 ③ | 2 ② | 3 ⑤ | 4 ② | 5 전체, 친구 |
| 6 ① | 7 ② | 8 ⑤ | 9 ② | |

1 (가)와 달리 (나)는 상호 작용적 매체로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그러나 (가)에서도 고궁 야간 개장의 풍경을 영상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나)에서도 고궁의 밤 풍경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2 (가)와 (나)는 모두 고궁 야간 개장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며 영상을 통해 야간 개장을 한 고궁의 밤 풍경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고궁의 역사에 대한 정보는 (가)와 (나)에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③ 고궁 야간 개장 예매 정보는 (나)에서만 얻을 수 있다.

④ 고궁 야간 개장에 방문한 관람객 수에 대한 정보는 (가)와 (나)에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⑤ 고궁 야간 개장과 관련한 불특정 다수의 의견은 (나)의 댓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가)에서는 알 수 없다.

3 은빛 중학교 누리집에 ‘쓰담 달리기’ 행사의 내용을 올리며 많은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예상 독자는 은빛 중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닌 은빛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4 학교 누리집은 여러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적절한 형식과 격식을 갖추어 소통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친한 친구와의 소통보다는 학교의 여러 사람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주로 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독자를 고려하여 게시 글을 써야 한다.

④ 사적인 경험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다.

⑤ 개성이 드러나는 자유로운 언어 표현보다는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형식과 격식을 갖춘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5 ‘신비’는 전체 공개 글을 통해 ‘신비’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친구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쓰담 달리기’에 참여한 소감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는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우주’는 친구 공개 글을 통해 ‘우주’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친구들에게 ‘쓰담 달리기’에 참여하며 강아지를 만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6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자신의 생각, 의견, 관점을 자유롭게 드러내며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 표현을 사용하지만, 독자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신비’와 ‘우주’의 게시 글도 전체 공개 또는 친구 공개로 독자를 설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7 블로그는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고 느낀 것을 글, 사진, 동영상 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다. 글을 올리면 수용자들이 이에 대한 감상이나 의견을 댓글로 달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대화하기에 편리하지는 않다. 일상적인 대화를 실시간으로 나누기에 편리한 공간은 온라인 대화방이다.

8 온라인 대화방은 대화방에 소속된 상대와 자유롭게 정서를 표현하며 일상 대화를 주고받는 공간이다. 많은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기보다는 대화방에 소속된 상대와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하기에 편리하다.

9 상호 작용적 매체에서 소통할 때는 소통 목적과 소통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통해야 한다. 따라서 소통 목적에 관계없이 소통하였는지 점검하는 것은 점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문해력 키우기

63쪽

- | | | | | | |
|------|------|------|------|------|------|
| 1 가끔 | 2 독자 | 3 개장 | 4 공동 | 5 × | 6 ○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확인 문제

65쪽

- | | | | | |
|-------|-----------|------|-----|------|
| 1 실시간 | 2 제약, 양방향 | 3 목적 | 4 ○ | 5 ○ |
| 6 ○ | 7 × | 8 ㉡ | 9 ㉢ | 10 ㉠ |

발전 활동 온라인 협업 플랫폼을 활용하기

활동 응용 문제

66~67쪽

1 ⑤ 2 ④ 3 ⑤

- 1 온라인 협업 플랫폼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주고받는 공간이므로 지나치게 개인적인 의견은 올리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정보의 양보다는 정보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올려야 한다.

②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공간이고, 협업을 위한 공간이므로 유행어나 줄임말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상호 작용적 매체에서 소통을 할 때는 소통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④ 온라인 협업 플랫폼에서는 시각 자료를 직접 올리거나 다양한 자료를 링크할 수 있다.

- 2 (가)와 (나)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찍은 사진과 짧은 글을 통해 자신의 취미를 소개하고 있다. 문서 첨부, 동영상 게시, 링크, 사진첩 연결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 3 (가)는 게시물 작성자의 취미인 야구 경기 관람과 관련된 사진과 글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야구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비하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평가

68~73쪽

- 01 ② 02 ④ 03 ④ 04 ② 05 ⑤ 06 ⑤
07 ④ 08 해시태그 09 ① 10 ③ 11 (가)는
불특정 다수를, (나)는 대화방에 소속된 친구를 소통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12 ③ 13 ④ 14 소통 맥락 15 ④
16 ⑤ 17 ⑤ 18 ④ 19 ④ 20 ④ 21 ①

- 01 (가)와 (나)는 모두 '고궁 야간 개장'이라는 공통된 화제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가)에 나타난 매체는 텔레비전으로 상호 작용적 매체가 아니다. 따라서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양방향성이 아니며 '아버지'는 예매 정보를 따로 찾아보려 하고 있다. (나)에 나타난 매체는 방송국 누리집으로 상호 작용적 매체이며, 사람들의 댓글을 확인한 방송국 측에서 예매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나)이다.

- 02 상호 작용적 매체는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다. 따라서 블로그, 학교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상호 작용적 매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ㄱ, ㄴ 영화와 신문을 통해 소통할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 또한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객이나 독자의 생각과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상호 작용적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03 (나)의 댓글 창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누리집의 내용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댓글 창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으며, (나)에 해당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04 (가)에서 '준후'와 '윤서'는 학생들을 독자로 정하고, 학생들이 '쓰담 달리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누리집에 게시 글을 쓰려고 한다. 또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쓰담 달리기' 행사에 대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오답 풀이 ㄴ, ㄷ (가)~(나)에서는 주로 '쓰담 달리기' 행사에 대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실시간으로 나누거나 다른 학교 누리집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 05 은빛 중학교 누리집은 은빛 중학교 학생들을 예상 독자로 하여 '쓰담 달리기' 행사의 내용을 알리고 많은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만큼 자유로운 언어 표현보다는 적절한 형식과 격식을 갖춘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06 '혜진'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학교 누리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개인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높임 표현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⑤와 같은 말을 해 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같은 학교의 친구들이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② '혜진'은 학교 누리집의 글을 읽을 독자는 자신의 친구 한 사람이 아닌 모든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③ 학교 누리집은 공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소통 공간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다면, 개성 있는 언어 표현보다는 적절한 형식과 격식을 갖춘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적절한 형식을 갖추고 독자를 고려했다면 학교 누리집에서도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다.

- 07 '신비'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를 독자로 하기 때문에 형식과 격식을 갖춘 언어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우주'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친구를 독자로 하기 때문에 '있었음!', '사진 찍었다.', '귀여워ㅋㅋ' 등과 같은 자유로운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신비'는 '쓰담 달리기'에 참여한 소감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는 자신의 생각을, '우주'는 '쓰담 달리기'에 참여하며 강아지를 만난 자신의 경험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글로 게시하고 있다.

② '신비'의 글은 전체 공개라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우주'의 글은 친구 공개라는 점에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 친구를 독자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우주'는 '쓰담 달리기' 행사에 참여하는 중에 강아지를 만난 경험을 사진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⑤ '신비'는 '쓰담 달리기' 행사에 참여하여 느낀 보람과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자신의 생각을 사진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 08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에서 특정한 단어나 문구 앞에 해시(#)를 붙이는 기능은 해시태그(hashtag)이다. (가)와 (나)에 나타난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글 뒤에는 모두 이러한 해시태그가 활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해시태그의 기능

게시물의 주요 단어에 해시태그를 달면 연관된 정보가 묶여서 다른 이용자들이 정보를 검색하기에 유용함. 이러한 해시태그는 정보 공유와 검색을 넘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음.

- 09 '우주'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달린 두 개의 댓글은 게시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를 통해 수용자끼리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보기>의 댓글은 개인적인 생각, 관점, 의견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있다.

③ '^^', 'ㅋㅋ'을 통해 자유로운 언어 표현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④ 첫 번째 댓글의 내용에 답하는 두 번째 댓글을 통해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의 댓글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표현한다는 소통 목적이 있으며, 상호 작용적 매체에 글을 쓸 때는 항상 소통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 10 (가)는 블로그, (나)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자신의 생각, 의견, 관점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대화방에 소속된 상대와 소통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실시간으로 나누는 것은 온라인 대화방인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 ⑤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정서를 표현하고, 비교적 많은 정보를 담은 게시 글을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블로그인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 11 (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이 보았던 뮤지컬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온라인 대화방에 소속된 친구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는 형식과 격식을 갖춘 언어 표현을, (나)는 자유로운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12 (가)는 블로그로, 일상생활에서 느낀 것을 글, 사진,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블로그를 공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나 개인적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는 있으나, 수용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게시된 글을 보고 댓글을 달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3 (나)는 온라인 대화방에 소속된 친구와 대화하고 있으며, 친구의 이사에 관한 일상적인 내용으로 아쉬운 마음, 격려하는 마음 등의 정서를 표현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 14 (가)와 (나)에는 소통 목적이나 소통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한 댓글이 나타나 있다. 상호 작용적 매체에서 소통할 때는 소통 목적과 소통 공간의 특성, 즉 소통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15 (가)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일상을 공유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수용자들은 감상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기며 정서를 표현한다. (나)는 제품과 관련된 공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정서를 표현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 16 ㉠은 평가를 받기 위한 동영상이 아닌데도 불필요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개인 정보를 노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17 ㉡은 제품에 대한 공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누리집 게시판에서 고객의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독자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과 격식을 갖추지 않은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특정 개인에게 전달하는 사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으나 그 정보가 정확하지 못한 것일 뿐, 관련이 없는 내용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③ 제품과 관련된 공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소통 공간의 특성에 맞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하고 있다.

④ 질문을 한 사람에게 답변하는 상황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해야 하는 정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8 <보기>의 학생은 친구들에게 축제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친구들이 참가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한 점은 없는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였다. 따라서 같은 대화방에 속한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대화방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19 상호 작용적 매체를 이용할 때는 자신의 소통 방식이 소통 맥락, 즉 소통 목적과 소통 공간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것인지 점검해야 하고 매체의 파급력을 생각하며 신중한 태도로 소통해야 한다. 다만 상호 작용적 매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으므로 실시간으로 소통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면, 소통하는 시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0 온라인 협업 플랫폼은 페이지를 공유하여 실시간으로 자료를 올리며 협업할 때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21 (가)는 야구 경기 관람이라는 자신의 취미를 소개하고 있고, (나) 또한 케이크 사진과 함께 케이크 만들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취미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게시물에 나타난 공통적인 주제는 취미 생활 소개이다.

대단원 평가

80~83쪽

- 01 ⑤ 02 ② 03 ⑤ 04 ⑤ 05 ㉠는 참새가 빗방울을 쪼는 모습이고, ⑥는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다. 06 ③
07 ④ 08 ⑤ 09 ② 10 ③ 11 ⑤ 12 ⑤
13 ① 14 ④ 15 ⑤ 16 ③ 17 ③ 18 ③

01 이 시는 봄날 아침의 아름답고 생동감 있는 풍경을 표현한 시이다. 향토적이라는 것은 고향이나 시골의 정취가 담긴 것을 의미하는데, 이 시에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은 드러나 있거나 구체적 지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02 이 시는 '가장', '고운', '노래'라는 단어의 반복과 '-골라 -니다', '-만 -(어/아)다닙니다'라는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행마다 길이의 차이가 있으므로 행의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첫 연과 끝 연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은 수미상관이며, 이 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이 시에는 한 행을 일정한 간격으로 끊어 읽는 음보율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봄날 아침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을 뿐, 의지를 다지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2연과 3연을 통해 참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서 빗방울을 쪼거나 나뭇가지 사이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② 1연을 통해 나뭇가지에 봄비가 아름답게 맺힌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③ 이 시는 시의 제목인 '봄날 아침'을 3연에서 반복하여 봄날 아침의 풍경을 다시금 떠오르게 하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④ 이 시는 '쫄쫄', '톡톡', '팔짝팔짝', '풀풀'과 같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생기 있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04 이 시의 3연은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을 살아 있는 것처럼 빗대어 표현하는 활유가 사용되었다. <보기>는 3연의 내용을 '미소 짓는다.'와 '손을 흔든다.'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빗대어 표현하는 의인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운율 형성, 의태어 사용, 감탄사 사용은 이 시의 3연과 <보기>에 모두 해당하므로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본뜻은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방법은 풍유로, 이 시의 3연과 <보기>에 모두 드러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그 밖의 비유의 종류

- 풍유: 본뜻은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속담이나 격언 등이 있음. ㉠ 등잔 밑이 어둡다.

- 대유: 사물의 일부뿐이나 특징으로서 전체를 대신 나타내는 방법.

㉡ 요람에서 무덤까지

05 ㉠은 참새들이 빗방울을 쪼는 모습을 피아노를 치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하려는 대상인 ㉡는 참새가 빗방울을 쪼는 모습이고, 그와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다른 대상인 ㉢는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다.

06 상징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상징은 비유와 달리 원관념이 겉으로 직접 드러나지 않으며, '길'은 인생을,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 상징을 사용하면 대상이 지닌 본래의 의미보다 풍부한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을 감상할 때 그 의미를 다양하고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다. 또 독자가 작품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고, 주제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07 이 시는 상징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민들레', '까치', '바람'과 같은 자연물은 말하는 이가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들로, 이들에 감정을 이입하거나 풍경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4연에서 '오늘도'와 '내일도' 뒤에 나올 말을 생략하고 말줄임표를 사용해서 여운을 주고 있다.

② 이 시는 삶, 인생을 상징하는 '길'을 소재로 삼아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마지막 연을 첫 연과 똑같이 반복하는 수미상관의 구조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3연을 기준으로 1, 5연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2, 4연은 말하는 이가 길을 가는 모습을 노래하며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다.

08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길은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길이자 인생(삶)을 상징한다. 즉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아무도 가지 않은 미지의 길이라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다짐이 표현된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09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내'와 '고개'를 지나 '숲'과 '마을'로 향하고 있다. 이때 '내'와 '고개'는 살면서 만나는 시련을, '숲'과 '마을'은 희망과 평화를 상징하므로, 말하는 이는 시련을 지나 희망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10 ㉠은 말하는 이가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인생을 의미한다. ③에서 평생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았다고 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 것이다. ③과 ㉠의 '길'은 모두 인생을 의미하므로 ㉠과 가장 유사한 의미로 '길'이 사용된 것은 ③이다.

오답 풀이 ① 어떤 일에 익숙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② 방향, 목적이나 전문 분야를 의미한다.

④ 어떠한 일을 하는 도중을 의미한다.

⑤ 방법, 수단을 의미한다.

11 상호 작용적 매체는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매체로, 문자 언어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다.

12 학교 신문과 학교 누리집은 주로 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 매체이다. 학교 누리집은 상호 작용적 매체에 해당하지만 생각, 관점,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소통하는 것은 상호 작용적 매체 중에서도 사회 관계망 서비스와 온라인 채팅방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매체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매체에 글을 쓸 때는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
②, ③ 학교 신문과 학교 누리집은 주로 학교와 관련한 공적인 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데 초점을 둔다.
④ 여러 사람이 보는 매체이므로 자유로운 표현보다는 적절한 형식과 격식을 갖춘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13 가족들과 등산을 다녀온 일상의 경험을 사진과 함께 글로 써서 정해진 카테고리에 분류하여 게시하고, 댓글을 통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블로그이다.

14 (가)는 ‘쓰담 달리기’ 행사에 대한 정보를 공지하면서 ‘쓰담 달리기’의 의미와 효과, 행사 일시, 당부 사항 등을 전달하고 있다. 이때 ‘쓰담 달리기’를 시작하는 출발 장소는 제시되어 있으나 도착 장소는 제시되지 않았다.

15 (나)에서는 ‘쓰담 달리기’ 행사 공지를 보고 학생들이 댓글을 달고 있다. 댓글에는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과 행사에 대한 기대감, 친구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친구가 행사에 참여할 것을 설득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16 (나)와 같은 댓글을 쓸 때는 학교 누리집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통 방식에 어울리는 댓글을 달아야 한다. 학교 누리집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적인 공간이므로 친구가 아닌 낯선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지만 특정 개인에게 하는 사적인 이야기는 삼가야 하며 적절한 형식과 예의를 갖추어 소통하는 것이 좋다.

17 (가)와 (나)는 모두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개인적인 생각, 의견, 관점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소통 공간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지닌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전체 공개로, (나)는 친구 공개로 공개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
② (가)와 (나)의 글 모두 사람들이 읽고 댓글을 달며 반응하고 있다.
④ (가)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자는 설득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고, (나)는 ‘쓰담 달리기’를 하다가 만난 강아지를 귀여워하는 정서 표현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다.
⑤ (가)는 ‘쓰담 달리기’에 대한 후기와 자신이 했던 생각을, (나)는 ‘쓰담 달리기’를 하다가 강아지를 만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18 해시태그는 특정 단어나 문구 앞에 해시(#)를 붙여 다른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며, 해시 뒤의 문구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내용을 간단하게 쓰는 것이 좋다.

한 걸음 더 서술형 문제

01 ‘쫄쫄’, ‘톡톡’, ‘팔짝팔짝’, ‘풀풀’과 같은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고 있다. ‘가장, 고운, 노래’와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 ‘-골라 -버니다, -만 -(여/아)다닙니다.’와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02 두 대상은 대상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03 이 시에서 ‘길’은 인생, 삶을 상징한다.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을 통해 시인은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강조하고자 했다.

04 ‘내’와 ‘고개’는 시련을, ‘숲’과 ‘마을’은 희망을 상징한다. 따라서 말하는 이는 시련을 지나 희망으로 향하고 있다.

05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가)는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만, (나)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상호 작용적 매체는 (나)의 방송국 누리집이다.

06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춤을 연습하는 동영상에 올려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댓글을 다는 사람은 동영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의견,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07 평가를 받기 위한 동영상상이 아닌데도 불필요한 평가를 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개인 정보를 노출하고 있다.

01 운율은 같거나 유사한 소리, 단어나 문장 구조 등이 반복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시에서는 의성어·의태어의 사용, 단어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여 리듬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의성어·의태어의 사용, 단어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 중 두 가지 이상을 썼다.	☐
각 요소에 해당하는 시어를 알맞게 썼다.	☐

02 ㉠은 참새들이 빗방울을 쫓는 모습(원관념, 표현하려는 대상)을 피아노 치는 모습(보조 관념, 빗댄 대상)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대상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이처럼 비유는 대상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서로 연결된다.

평가 기준	확인
‘반복적으로 누르는 모습’이 두 대상의 공통점임을 알맞게 썼다.	☐
완성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3 이 시는 인생, 삶을 상징하는 ‘길’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말하는 이의 삶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은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한 걸음 더 고득점 문제

- 01 ③ 02 ⑤ 03 ③ 04 ④ 05 ③ 06 ①
- 07 ③ 08 ⑤ 09 ④ 10 ④ 11 ⑤ 12 ④
- 13 ⑤ 14 ⑤

평가 기준	확인
'길'이 상징하는 의미를 알맞게 썼다.	☐
'길'의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제목을 통해 시인이 말하려는 바를 적절하게 썼다.	☐

- 04 '내'와 '고개'는 비탈진 곳으로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을 상징하고, '숲'과 '마을'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터전으로 희망과 평화를 상징한다. 즉 ㉠은 말하는 이가 시련을 지나 희망으로 향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내'와 '고개', '숲'과 '마을'이 상징하는 의미를 알맞게 썼다.	☐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말하는 이가 어디를 지나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적절하게 썼다.	☐

- 05 (가)는 정보의 수용자가 모르는 정보를 직접 찾아보려 한다는 점에서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는 댓글을 보고 기사 내용이 수정되었다는 점에서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상호 작용적 매체는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매체이므로, (나)의 방송국 누리집이 이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확인
정보의 생산과 수용 측면에서 (가)와 (나)가 어떻게 다른지 썼다.	☐
상호 작용적 매체로 (나)의 방송국 누리집을 찾아 알맞게 썼다.	☐

- 06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발표회를 위한 춤 연습 동영상상을 통해 즐기면서 춤추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일상 모습을 공유한 것이다. 댓글을 다는 사람은 동영상을 본 뒤 자신의 생각, 의견,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게시물을 올린 사람과 댓글을 다는 사람의 소통 목적을 적절하게 파악하여 썼다.	☐
각각 한 문장으로 썼다.	☐

- 07 이 게시물은 평가를 받기 위해 올린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춤추는 모습을 공유하기 위해 올린 것이므로 이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개인 정보를 노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평가 기준	확인
불필요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썼다.	☐
개인 정보를 노출하고 있다는 점을 썼다.	☐
각각 한 문장으로 썼다.	☐

- 01 (가)에서는 '봄비', '나뭇가지', '참새'와 같은 자연물이 나타나는데, 이는 봄날 아침의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나)에서는 '내', '숲', '민들레', '까치' 등의 자연물이 나타나는데 이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들이다.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지만, 자연물의 특성을 나열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단어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나)의 4연에서는 '오늘도'와 '내일도' 뒤의 말을 생략하고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④ (가)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생동감 있는 봄의 풍경을 묘사하지만, (나)는 계절적 배경과 그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에는 표현하려는 대상(원관념)을 그와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다른 대상(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가 나타나며, (나)에는 표현하려는 추상적 개념(원관념)을 구체적 사물(보조 관념)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상징이 나타난다.

- 02 이 시의 5연에서는 1연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며 변함없는 태도로 나아가려는 시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화제를 전환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1연에는 '내'와 '고개'를 건너 '숲'과 '마을'로 향하고 있는 말하는 이의 상황이 드러난다.

② 2연에는 말하는 이가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쉬지 않고 나아가려는 의지적 태도가 드러난다.

③ 3연에는 말하는 이가 길 위에서 만나는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이 나타나 있다.

④ 4연에는 앞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말하는 이의 모습이 드러난다.

- 03 ㉠은 나뭇가지에서 튕겨 나오는 빗방울의 모습을 즐거운 노래에 빗대어, 직접 연결하는 말 없이 표현하는 은유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이 사용된 것은 '구름'을 '파란 색종이 위의 안개꽃 한 다발'에 빗대어, 직접 연결하는 말 없이 표현한 ㉡이다. 한편 ㉢은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인 '기쁜 일'을 살아 있는 것처럼 팔짝팔짝 뛰어다니한다고 표현하는 활유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이 사용된 것은 '햇빛'이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새싹을 낳는다고 표현한 ㉣이다.

오답 풀이 ㉡은 사람이 아닌 '시냇물'이 마치 사람처럼 손짓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의인이 사용되었다.

㉢은 '동생의 발소리'를 '기차 소리'에 빗대어, '처럼'이라는 말로 직접 연결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직유가 사용되었다.

04 ㉔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이어지는 공간으로, 말하는 이가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인생(삶)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길'은 행복과 평화를 찾기 위해 거치는 곳이며,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을 상징하는 곳은 '내'와 '고개'이다.

② 미래에서 과거로 향하는 공간이 아닌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향하는 공간이다.

③ '숲'과 '마을'을 분리하는 역할이 아닌, '숲'과 '마을'로 이어지는 공간이다.

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내용은 이 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05 원관념을 보조 관념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은 상징이다. 비유는 표현하려는 대상(원관념)을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다른 대상(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06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을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은 활유이며, 이 시에서 활유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② 1연과 3연에서 '내 마음은', '들이', '나란히 -여 있다'를 반복하며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내 마음'을 '빨래 건조대'와 '미술 시간 후 책상'에 빗대어 직접 연결하는 말 없이 표현하는 은유가 사용되었다.

④ '내 마음은', '나란히 -여 있다.'의 유사한 구조로 반복하여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사춘기의 마음과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⑤ '봄바람', '햇살', '별빛'과 같은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07 파랑새는 글 안에서 '행복'을 상징하는 소재로 사용되었다. 추상적인 개념인 '행복'을 구체적인 사물인 '파랑새'로 표현하여 글을 읽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작품의 상황을 떠올릴 수 있고, 작품의 의미를 다양하고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파랑새를 둘러싼 등장인물 간의 대립은 나타나지 않는다.

08 툇털은 파랑새를 찾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파랑새가 날아가 버려서 슬퍼하는 소녀에게 ㉠과 같이 말한 것이다.

09 (가)는 블로그, (나)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가)와 (나) 모두 상호 작용적 매체에 해당한다. (가)와 (나)에서는 모두 생각, 의견, 정보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다. 또한 (가)에서는 사진, (나)에서는 이모티콘이 나타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자 언어 외의 자료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 (가)와 (나) 같은 상호 작용적 매체는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또한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

10 (가)의 블로그는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지만, (나)의 온라인 대화방은 같은 대화방에 소속된 상대와만 소통할 수 있다. (나)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사람과 소통하는 공간인 것은 맞지만, 소통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11 (나)는 온라인 대화방에 참여한 친구들끼리 소통하고 있으며, 친한 친구의 이사 소식을 전할 뿐, 개인 정보를 노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매체이므로 격식에 맞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② (가)는 뮤지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이를 추천하면서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뮤지컬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면서 정서 표현을 하고 있다.

③ (나)는 슬픔이나 격려를 표현하기 위한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있다.

④ (나)는 친구들만 있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참고 자료

소통 방식의 적절성 점검 기준

- 소통 목적을 고려하여 소통하였는가?
- 소통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통하였는가?
- 타인의 관점에 공감하며 협력적으로 소통하였는가?
- 매체의 파급력을 생각하며 신중한 태도로 소통하였는가?
- 적절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맞춤법을 지키며 소통하였는가?

12 (가)와 (나)는 온라인 협업 플랫폼을 이용해 소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호 작용적 매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댓글 또한 시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남길 수 있다.

13 학교의 행사를 알리는 공지 글은 공적인 목적이 강하므로 학교 누리집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함부로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4 온라인 협업 플랫폼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으며 공적인 정보만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온라인 협업 플랫폼 글에 댓글을 달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② 'ㄷ', '^^'과 같은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③ ㉠에서는 자신도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예매했었음을 밝히며 다음에 함께 가자고 표현하고 있으며, ㉡에서는 케이크를 잘 만들었다며 칭찬하고 있다.

④ 온라인 협업 플랫폼에서 소통할 때도 소통 목적과 소통 공간의 특성 등의 소통 맥락에 맞게 소통해야 한다.

2 안 보이던 것도 보이는 지혜

01 글 속에 숨은 생각 찾기

소단원 한눈에 보기

94~95쪽

- 1 (1) ○ (2) ○ (3) × (4) ×
- 2 (1) 주제 (2) 배경지식 (3) 정보 (4) 추론
- 3 (1) 집 (2) 공간 (3) 소통
- 4 (1) 소통 (2) 공간 (3) 인위적
- 5 (1) ○ (2) ×

제재 「공간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

스스로 확인하기

98~105쪽

- (1) ○ (2) 대청마루 (3) 공동체적 (4) 길 (5) 부정적 (6) × (7) ○
- (8) 공동체 (9) 배경지식

내용 확인 문제

98~105쪽

- 1 ③ 2 소통 3 ⑤ 4 ④ 5 도로, 경쟁 6 ②

- 1 이 글은 공간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다.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거실을 소통의 공간으로 가꿀 때 우리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며, 공간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소통의 측면에서 옛날 집 구조의 대청마루와 오늘날 거실을 비교하고 있을 뿐, 건축 기술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② 개인적인 공간인 방을 잘 가꾸면 행동과 마음가짐이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말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공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④ 공간을 가꾸는 것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으나, 공간을 효율적으로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오늘날의 거실이 옛날 집 구조에서 대청마루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 옛날 대청마루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는 소개하고 있지 않다.

- 2 글쓴이는 책장에 책이 꽂혀 있고 식물을 놓아둔 거실에서 가족들과 대화하거나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

다. 글쓴이는 오늘날의 거실을 옛날의 대청마루와 같이 소통의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3 ‘우주’는 글에 나타난 정보 중 하나인 글쓴이를 활용하여 글쓴이가 글을 쓴 목적을 추론하고 있다. 글에 나타난 정보로는 중요한 단어나 어구, 제목이나 소제목, 시각 자료, 글쓴이 등이 있다.

- 4 이 글에 따르면 골목길에 차량이 늘어나 차량 통행을 우선시하고 사람들이 차를 조심하게 되면서 골목길은 불편한 공간이 되었다. 이로 인해 본래 소통의 공간이던 골목길에 사람들이 나가지 않게 되어 이웃 간의 소통도 줄어들었다. 따라서 차량이 늘고 교통이 편리해져 이웃 간의 소통이 늘었다는 내용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도로를 통해 사람들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편리해졌음을 언급하고 있다.

② 옛날 골목길은 이웃끼리 이야기를 꽃피우고, 아이들이 함께 뛰놀던 소통의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길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도로는 인위적으로 확장하여 건설한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⑤ 평평하고 곧게 다듬어져 있는 도로와는 달리, 길은 지형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거나 구불구불하며,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이 글의 글쓴이는 도로의 모습에 대해 “마치 서로 일등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듯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연상되지는 않는가?”라고 표현하며 도로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표현에서 경쟁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 관점도 엿볼 수 있다. 이외에 길, 골목길, 소통, 공동체는 모두 글쓴이가 바라는 공간의 모습과 관련된 것이므로,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다.

- 6 글쓴이는 동네에 ‘재미난 책들이 쌓여 있고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를 바란다. 이는 이웃과의 소통이 부재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옛날 골목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 생겨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때문이다. 이 글에 책을 읽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비판 의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답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독자에게 길의 의미를 물음으로써 독자 스스로 의미를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길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③ 글쓴이는 옛날 골목길의 사진을 제시하여 이웃과의 정겨운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옛날 골목길과 같은 공간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도로의 모습을 보면서 일등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듯 달리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글쓴이가 도로를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⑤ 글쓴이는 가족과 함께하는 거실, 이웃과 함께하는 옛날 골목길과 같은 소통하는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글쓴이는 소통이 줄어든 현재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1 ③ 2 ③ 3 ⑤ 4 ⑤ 5 ④

1 '우주'는 '학생 1'과 '학생 2'의 방을 사진으로 제시한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고 있다. '우주'가 추론할 때 활용한 요소인 사진은 시각 자료에 해당하며, 이는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한 추론에 해당한다.

2 글쓴이는 길의 의미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독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는 길의 의미에 대하여 독자 스스로 생각해 보고 답을 하도록 유도하여 글쓴이의 생각에 자연스럽게 동조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도로를 보며 '일등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듯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이는 도로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며, 글쓴이가 도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글쓴이는 독자들에게 '며칠 동안 수학여행을 가거나 체험 활동을 갔던 경험'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의 예상 독자가 학생, 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된 어구를 통해 학생과 어른이 떠올린 길의 의미를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글쓴이는 도로가 있어 우리 삶이 편해졌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나, 제시된 어구를 통해 잘 다듬어진 길이 주는 편리함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글쓴이는 삶을 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 글쓴이는 공간을 가꾸면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옛날 골목길과 같은 공간을 두어 사람들과 소통하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자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오늘날 거실이 옛 조상들의 집 구조에서 대청마루에 해당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 옛 조상들의 건축 기술을 되살리자고 한 것은 아니다.

② 글쓴이는 대청마루가 소통의 공간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거실도 소통의 공간으로 가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 맞게 집의 구조를 바꾸자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③ 글쓴이는 공간을 가꾸고 소통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환경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④ 글쓴이는 소통이 없어진 오늘날의 거실과 동네를 소통의 공간으로 가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인 공간과 공유하는 공간의 구분을 없애자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4 글쓴이는 공간을 가꾸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행복을 느끼는 삶의 모습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쓴이는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이자 사람들이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인 아이들이 모여 노는 놀이터를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모습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은 개인적인 공간인 방을 깨끗하게 정돈하며 공간을 가꾸는 모습을, ②, ③, ④는 모두 공동체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5 글을 추론하며 읽으면 글에 드러나지 않은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글의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며 글을 꼼꼼하게 읽을 수 있다. 또한 글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여 글의 숨은 주제에 접근할 수 있으며, 글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분량의 글을 읽는 것은 추론하며 읽기와 관련이 없다.

문해력 키우기

111쪽

- 1 위법 2 화제 3 짐작하다 4 수척 5 일깨웠다
6 불과한 7 온전하게 8 정비했다 9 관점 10 셋길
11 소통 12 안전망

확인 문제

113쪽

- 1 ○ 2 ○ 3 × 4 도로 5 옛날 6 방
7 부정적 8 배경지식 9 이해 10 시각 자료

발전 활동 「안전 불감증 '심각' 단계」

내용 확인 문제

114~115쪽

1 ③

1 이 글은 전철 안과 도로 위의 사례를 들어 일상에 퍼진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전철 안과 도로 위의 상황에 대한 대조는 나타나지 않으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서울 교통 공사, 경찰청, 도로 교통 공단, 서울시, 통계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② 이 글은 보건 교육 포럼 △△△ 이사장의 인터뷰를 직접 인용하여 안전 교육이 소홀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이 글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과 '무단 횡단 금지'라고 쓰인 표지판을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통계청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는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전철에서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고 목격한 일반 시민의 인터뷰를 직접 인용하여 우리 일상 곳곳에 안전 불감증이 퍼진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기사문의 구성

- **표제:** 내용 전체를 압축하여 나타내는 제목
- **부제:** 표제에 덧붙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작은 제목
- **전문:** 본문 앞머리에 위치하여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 주는 부분
- **본문:**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서술한 부분
- **해설:** 본문 뒤에 덧붙여 기사에 대한 참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을 제시하는 부분

활동 응용 문제

116~117쪽

1 ⑤

- 1 글쓴이는 일상에 퍼진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가 안전 불감증을 극복하고 일상에서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에 전철이 아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안전 불감증 극복이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실천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는 안전한 생활을 위해 독자가 실천할 수 있는 일에 해당하므로 글쓴이가 기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다.

소단원 평가

118~121쪽

- 01 ④ 02 ③ 03 ④ 04 ② 05 ④ 06 ④
07 ① 08 ⑤ 09 ③ 10 ④ 11 ⑤

12 안전 불감증

- 01 이 글은 공간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다룬 글로, 공간별로 소재목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집을 떠나 수학여행이나 체험 활동을 갔던 경험을 떠올려 보자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집과 관련된 일상적 경험을 환기하는 것이다.

② (나)에서 방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모습을 방을 가꾸지 않는 '학생 1'과 방을 잘 가꾸는 '학생 2'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나)에서 "자, 지금 방을 둘러보자.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해 보자."라는 청유형 문장을 활용하여 독자에게 방을 가꾸고 정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⑤ (가)의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 보았는가?"와 (나)의 "우리는 개인적인 공간인 방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등에서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집과 방에 대한 생각을 환기하며 독자가 질문에 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02 글쓴이는 개인적인 공간인 방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바뀐다고 생각한다. 또한 글쓴이는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행동을 바꾸고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 방을 치우는 것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글쓴이는 방에 대해 "문을 열면 다른 공간과 통하고, 문을 닫으면 개인적인 공간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② (가)에서 글쓴이는 "집은 우리가 몸을 편히 눕힐 수 있는 공간이자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④, ⑤ (나)에서 글쓴이는 '학생 1'과 '학생 2'의 사례를 제시하고, 공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방을 비롯한 공간을 가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이것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보여 주는 것이다.

- 03 ①은 이 글의 주제로 공간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 글쓴이는 같은 공간이라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환경과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①은 공간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 04 글쓴이는 독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생략하거나, 자신의 관점이나 자신이 글을 쓴 의도를 일부러 밝히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거나, 중요한 단어나 어구처럼 글에 나타난 정보에 주목하여 글에 드러나지 않은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 글의 숨은 주제를 추론할 수 있다. 중심인물의 행동을 정리하며 읽는 것은 소설이나 시나리오를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에 해당하므로 이 글을 읽는 효과적인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 05 <보기>에서 '우주'는 자신이 보았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떠올리며 이를 근거로 글쓴이가 독자에게 어떤 대답을 끌어내려고 하는지 추론하고 있다. 이는 매체를 통해 간접 경험하여 얻은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한 것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배경지식

- 배경지식은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말함.
- 배경지식은 체험 등의 직접 경험을 통해 얻거나, 독서나 대화, 매체 등의 간접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음.

06 ㉔은 공간과 공간,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역할을 하는 길의 본질적 의미를 제시할 뿐, 도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㉔은 오늘날의 거실 풍경에 대한 화두를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뒷부분에서 오늘날의 거실 풍경에 대한 내용이 전개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② ㉔은 텔레비전을 치우고 휴대 전화를 내려놓자고 독자에게 직접 제안하고 있으므로, 독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③ ㉔은 공간과 공간,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것이 길의 특성임을 나타내는 소재목이다. 이를 고려할 때, 다음 단락은 길의 기능과 사람들 간의 소통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⑤ ㉔은 길의 의미를 독자에게 질문하고 있으므로, 독자 스스로 길의 의미를 떠올려 보고 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07 이 글은 동네에 옛날 골목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과 소통하여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자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독자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을 다짐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은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약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바라고 있다. 단순히 약기나 그림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 글의 의도와 거리가 멀다.

③, ④, ⑤ 이웃과 함께하는 옛날 골목길과 같은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나 사고의 예방, 이동 시간 절약 등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08 <보기>는 (다)와 (라)에서 골목길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고 한 것을 바탕으로 '우주'가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한 내용이다. 이는 글에 나타난 중요한 단어인 '골목길'과 '소통', '공간'을 바탕으로 글의 숨은 의도를 추론하며 읽은 것에 해당한다.

09 [A]는 옛날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글쓴이는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지는 옛날 골목길의 정겨운 모습을 독자가 직접 볼 수 있게 시각 자료의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이웃들과 함께하는 옛날 골목길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다양한 놀이 방법을 보여 준 것은 아니다.

② 소통이 부재한 공간의 모습이 아닌, 사람 간의 정다운 소통이 있는 공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④ 옛날 골목길의 정겨운 풍경이 나타나 있으며, 무분별한 도로 개발이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⑤ 동네의 옛날 모습이 녹아 있는 사진만 제시하고 있으며, 동네의 발전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10 (가)를 통해 개인형 이동 장치 탑승자가 안전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지만, 전동 킥보드와 관련하여 신설된

도로 안전 수칙의 내용은 글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무단 횡단 사고와 관련한 '도로 교통 공단'의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다)에서 '보건 교육 포럼 △△△ 이사장'의 인터뷰를 통해 안전 교육이 소홀한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는 전문가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에서 무단 횡단이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사람들이 무단 횡단을 하는 이유가 군중 심리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2022년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 인공호흡과 심폐 소생술의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알 수 있다.

11 (다)에서 응급 상황 시 처치 방법을 잘 알고 있는지 조사한 '통계청'의 설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안전 교육 소홀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효과가 있을 뿐, 응급 상황에 미흡하게 대처한 사례를 제시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글의 내용과 관련된 현실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사실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② (다)에서 2022년 '통계청'의 설문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 주고 있다. 그래프에서는 응급 상황 시 처치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낮으며, 응급 처치 방법을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안전 교육 소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③ (다)에서 안전 교육 분야의 전문가인 '보건 교육 포럼 △△△ 이사장'의 인터뷰를 직접 인용하고 있다. 이는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④ '경찰청', '도로 교통 공단', '통계청'의 통계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 통계 자료들은 일상에 퍼진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12 이 글은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군중 심리에 이끌려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 안전 교육이 소홀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 불감증은 우리 사회에서 자주 관찰되는 모습을 부각하고 그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02 실마리를 따라가며 듣기

소단원 한눈에 보기

124~125쪽

- 1 (1) 청자 (2) 담화 (3) 발화 (4) 상황 맥락 (5) 의미
- 2 (1) ○ (2) × (3) ○ (4) ○
- 3 (1) 추론 (2) 원활하게
- 4 (1) 신사임당 (2) 학생들 (3) 화자
- 5 (1) ○ (2) × (3) ×

스스로 확인하기

132~135쪽

- (1) ○ (2) 다르게 (3) 생생하게 (4) ○

활동 응용 문제

128~137쪽

- 1 ② 2 ④ 3 ④ 4 ⑤ 5 ④ 6 ⑤
7 ② 8 ① 9 ②

- 1 ㉠은 의사가 환자에게 아픈 곳이 있는지 물어보는 의미로, ㉡은 점원이 손님에게 옷이 잘 맞는지 물어보는 의미로 쓰였다. ㉠과 ㉡에서 제시된 상황에서는 듣는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듣는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담화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④ ㉠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려는 목적으로, ㉡은 점원이 손님에게 옷을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말하고 있다. ㉠과 ㉡은 담화 목적과 발화 의도가 서로 다르므로 의미가 달라진 것이다.

③, ⑤ ㉠은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은 옷 가게에서 점원이 손님에게 물어보는 상황이다. ㉠과 ㉡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가 서로 다르므로 의미가 달라진 것이다.

- 2 선생님이 급식실에서 “배고프지 않니?”라고 물어본다면, 이 말의 의미는 학생이 식사를 했는지 확인하는 의미, 학생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의미 등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배고프지 않니?”라는 말에서 좋아하는 점심 메뉴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의미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

참고 자료

담화의 구성 요소

담화 참여자	화자(말하는 사람), 청자(듣는 사람)
전달하려는 내용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려는 내용
맥락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시간과 공간)이나 사회·문화적 배경

- 3 부채질을 하는 손짓, 창문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탕으로 ‘슬기’의 발화 의도를 추론할 때, ‘슬기’는 ‘영재’에게 창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재’는 ‘슬기’의 요청에 반응하여 창문을 열어 주고, 이와 관련된 대답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 4 상대의 발화 의도를 추론하며 들으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상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상대의 발화 의도를 알게 되어 담화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감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상대의 발화 의도를 추론하며 들으면 짧은 대화로 담화의 목적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서로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므로 이로 인해 대화할 일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다.

- 5 강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강조할 때 목소리를 높이거나 힘 있는 어조로 또박또박 말한다. 또한 동작이나 표정 등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기도 한다. 따라서 화자가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들으면 강연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친구들과 상의하며 들으면 이어지는 강연자의 말을 들을 수 없고 다른 청중들에게 방해가 되므로 강연에 집중하며 들어야 한다.

② 강연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메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전체 강연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중심으로 메모하며 들어야 한다.

③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만 집중하면 강연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전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⑤ 화자의 언어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모두 중요하므로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며 들어야 한다.

참고 자료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목소리의 크기, 억양, 말의 빠르기 등
비언어적 표현	동작, 표정, 시선 등



직접적인 언어 표현은 아니지만 언어 표현에 덧붙여 의미를 전달함.

- 6 신사임당은 그 해에 새로 자란 가지는 훨씬 진한 먹으로 그려 기존에 있던 가지와 다르게 표현하였다. 「포도」 그림은 먹색으로만 그렸으므로 새로 자란 가지가 푸르게 표현되어 색이 다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포도」 그림은 원래 여러 색을 사용하지 않고 먹으로만 그린 그림이라고 하였다.

② 서로 다른 속도로 열매가 익어 가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열매 하나하나의 농도를 각각 다르게 표현하여 마치 여러 빛깔을 사용한 것처럼 표현했다고 하였다.

③ 오만 원권의 앞면에는 신사임당의 얼굴과 함께 「포도」 그림이 실려 있다고 하였다.

④ 대상을 생생하게 그리면서도 한 번 붓이 지나간 곳에는 다시 덧칠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7 화자는 뛰어난 관찰력을 바탕으로 포도를 관찰하여 「포도」 그림을 완성한 신사임당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신사임당이 포도를 세밀하게 관찰했듯이 청중들도 옛 그림을 자세히 관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8 화자는 ‘신사임당’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며 청중의 배경지식을 환기하고 있다. 이는 청중으로 하여금 배경지식을 떠오르게 하여 강연에 몰입하도록 도우려고 하는 화자의 의도가 나타난 발화이다.

9 이 강연에서 화자는 신사임당의 뛰어난 관찰력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청중이 옛 그림을 세밀하게 관찰해 보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화자는 옛 그림을 감상할 때는 관찰력을 가지고 세밀하게 감상해야 한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해력 키우기

139쪽

- 1 실마리 2 특징 3 맥락 4 강연 5 ○ 6 ○
7 × 8 × 9 ㉠ 10 ㉡ 11 ㉢ 12 ㉣

확인 문제

141쪽

- 1 의사소통 2 청자 3 가치관 4 정보 전달 5 의미
6 강조하고 싶을 때 7 진료를 보기 어렵다. 8 ㉠
9 ㉡ 10 ㉢

발전 활동 대화의 상황 맥락을 구성하여 연극하기

활동 응용 문제

142~143쪽

- 1 ② 2 ④ 3 ③

1 제시된 상황에서 “지금 뭐 하세요?”라는 말의 의미는 선생님이 체육관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물어보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 제시된 담화에서 ‘딸’은 새로 산 옷으로 갈아입은 뒤 ‘어머니’에게 어떠냐고 물어보고 있고, 이에 ‘어머니’는 옷이 조금 작은 것 같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화의 상황 맥락을 바탕으로 추론할 때, “어때요?”라는 발화는 새 옷이 잘 어울리는지 물어보는 의미이다.

3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며 들을 때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 담화의 의도나 목적, 화자와 청자의 관계 등의 상황 맥락과 함께 화자가 강조하는 내용, 화자의 목소리 크기, 몸동작 등 담화에 나타난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표정이나 시선은 화자의 의도를 추론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평가

144~147쪽

- 01 ① 02 ④ 03 ② 04 ⑤ 05 ⑤ 06 ⑤
07 ⑤ 08 ⑤ 09 ④ 10 ② 11 ③ 12 ③
13 ④ 14 ⑤ 15 ⑤ 16 관찰력

01 머릿속의 생각이 구체적인 문장 단위로 나타나는 것을 ‘발화’라고 하며, 이러한 발화가 모인 것이 ‘담화’이다. 담화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설득, 정서 표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오답 풀이 ② 담화의 의미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인 상황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③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담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④ 말하는 사람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크기나 속도, 표정, 몸동작 등 담화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말하는 사람의 숨겨진 의도와 관점을 추론할 수 있다.

⑤ 상황 맥락과 담화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관점, 가치관을 추론하며 들으면 담화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02 <보기>는 발화와 담화의 개념, 담화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발화는 머릿속의 생각이 구체적인 문장 단위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에는 ‘문장’이 들어간다.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화자, 청자, 전달하려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에는 ‘전달하려는 내용’이 들어간다.

03 담화의 상황 맥락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맥락으로, 담화의 의도나 목적(㉠),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 등을 포함한다.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은 담화의 상황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라 보기 어렵다.

04 제시된 담화에서 ‘민호’는 약속 시간에 왜 늦었냐고 묻는 ‘지수’의 발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민호’에게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05 '민호'는 약속 시간에 늦은 상황과 화가 난 '지수'의 표정을 바탕으로 '지수'의 발화 의도를 추론하여 대답해야 한다. 이때 '지수'의 발화는 약속 시간에 늦은 '민호'를 나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민호'는 약속 시간에 늦은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이 늦은 이유를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06 <보기>는 한 학생이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내리는 문 앞에 서 있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저, 실례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자신이 이번 정류장에서 내릴 수 있게 비켜 달라고 요청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07 (가)와 (나)의 답화는 같은 말이라도 상황 맥락에 따라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가)는 옷 가게에서 점원이 손님에게 옷이 잘 맞는지를 물어보는 의미이고, (나)는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아픈 곳이 있는지 물어보는 의미이다. 따라서 (가)와 (나)에 나타난 발화의 의미가 ‘어디가 아프신가요?’로 동일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옷 가게에서 점원이 손님에게, (나)는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말하는 상황이므로 답화에 담긴 의도나 목적이 서로 다르다.

②, ③ (가)에서 말하는 사람은 점원, 듣는 사람은 손님이다. (나)에서 말하는 사람은 의사, 듣는 사람은 환자이다.

④ 답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상황 맥락을 바탕으로 발화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08 ‘학생 2’는 함께 놀지 못한다는 사실에 서운해하는 ‘학생 1’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효자’라는 말을 표면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답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2’는 ‘학생 1’이 효자라고 말한 속 뜻을 파악하고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말하며 양해를 구하는 대답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무거운 짐을 혼자 옮기는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너, 시간 좀 있니?”라는 ‘학생 1’의 말은 시간 있으면 같이 짐을 들어 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학생 2’의 반응은 적절하다.

② ‘아들’의 방이 지저분하다는 ‘엄마’의 말은 방을 치우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아들’의 반응은 적절하다.

③ 시청이 어디에 있는지 아나는 ‘행인 1’의 말은 시청에 가는 길을 알려 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행인 2’의 반응은 적절하다.

④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에게 하는 ‘선생님’의 말은 수업을 잘 들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반응은 적절하다.

09 (가)에서 ‘영재’는 ‘승우’의 옆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 제일 친한 친구인 자신과 ‘승우’의 관계, ‘승우’의 밝은 표정을 바탕으로 옆에 같이 앉자는 ‘승우’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승우’가 “여기 자리 있어.”라고 한 까닭은 ‘영재’가 옆자리에 앉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함이다.

10 (나)에서 ‘영재’는 ‘슬기’가 손으로 부채질을 하는 행동, 창문을 열 수 없는 자리의 특성을 바탕으로 창문을 열어 달라는 ‘슬기’의 의도를 추론하고 있다. 따라서 ‘영재’는 말하는 사람인 ‘슬기’의 상황과 행동을 추론의 근거로 활용하여 의미를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이 강연의 화자는 청자인 희망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신사임당의 「포도」 그림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즉 화자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화자의 전문성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오답 풀이 ①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은 ‘신사임당’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강연에 대한 청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② 「포도」 그림과 오만 원권 지폐를 시각 자료로 제시하여 청자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④ 이 강연은 희망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사임당의 그림 「포도」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⑤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끝나고 집에 가서 해야 할 일들’과 같이 현실의 구체적인 일들을 언급하며 청자인 학생들의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

12 이 강연의 화자는 ㉠의 발화를 통해 화면 속의 그림이 청중이 일상에서 쉽게 접했던 그림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그림과 관련한 청중의 배경지식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청중으로 하여금 강연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13 화자는 신사임당이 세밀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포도」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을 뿐, 청중들이 어머니로서의 신사임당의 진면목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신사임당의 「포도」 그림과 오만 원권 지폐를 확대한 화면을 직접 보여 주며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중들이 강연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② 화자는 “그림 한 장으로 오백 년도 더 지난 옛날을 여행할 겁니다.”라고 말하며 강연의 내용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중이 강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③ 화자는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시각 자료를 보여 주거나, 청중의 배경지식을 환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중은 강연을 들으며 「포도」 그림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

⑤ 화자는 「포도」 그림을 설명하며 신사임당의 뛰어난 관찰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중은 「포도」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14 답화의 상황 맥락과 함께 답화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화자의 숨겨진 의도와 관점, 가치관을 추론해야 답화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강연을 들 때는 겉으로 드러난 화자의 의도와 관점뿐 아니라 숨은 의도를 추론하며 들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화자가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에 주목하여 들으면 강연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② 강연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 강연의 의도나 목적 등의 상황 맥락을 활용하면 강연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메모하며 들으면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화자의 의도나 관점을 추론할 수 있다.

④ 화자의 목소리 크기나 속도, 표정, 몸동작은 직접적인 언어 표현이 아니지만 언어 표현에 덧붙여 의미를 전달하므로, 이에 담긴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며 들으면 강연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15 화자는 「포도」 그림을 그린 신사임당의 관찰력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청중 또한 세밀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옛 그림을 감상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포도」 그림을 주제로 하여, 뛰어난 관찰자가 되어 옛 그림을 꼼꼼하게 감상하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16 화자는 먹의 농도가 각각 다르게 표현된 포도 열매와 가지의 모습을 설명하며 신사임당의 뛰어난 관찰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청중 또한 뛰어난 관찰자가 되어 옛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관찰력'이다.

대단원 평가					
154~157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④	05 ③	06 ②
07 ⑤	08 안전 교육	09 ⑤	10 ②	11 ⑤	
12 ④	13 ④				

01 이 글은 집과 방이라는 공간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는 수필이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며, 방의 구조가 변화한 양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집과 방의 기능과 의미를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② 집과 방의 기능과 의미를 밝히며 공간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가치관을 담아내고 있다.

③ (가)에서 집을 떠나 수학여행을 가거나 체험 활동을 갔던 독자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여 글의 내용에 대한 몰입을 돕고 있다.

④ (라)에서 방을 잘 치우지 않는 '학생 1'의 사례와 방을 잘 정리 정돈하는 '학생 2'의 사례를 대조하여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2 (마)에서 글쓴이는 공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바뀐다고 하며 공간 가꾸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 독자가 잊고 있었던 일상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글쓴이는 수학여행과 체험 활동에 대한 독자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상 독자를 학생 또는 청소년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② (나)에서 글쓴이는 집을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으면 이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③ (다)에서 글쓴이는 개인적인 공간인 방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독자는 각자 자신의 방의 모습을 떠올릴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④ (라)에서 글쓴이는 두 학생의 사례를 대조하여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인지 독자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공간을 잘 정리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려 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03 ㉠은 이 글의 주제를 나타낸 문장으로, 사람은 공간을 가꾸어야 하며 잘 가꾸어진 공간은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공간을 깨끗하게 가꾸고, 이렇게 정리된 공간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과 ㉢의 '석현'과 '서희'는 자신의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한 결과, 그것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므로 ㉠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 '아침 수영'과 '요리에 관한 독서'는 공간을 가꾸는 것과 관련이 없다.

04 이 글의 글쓴이는 주변 환경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나아갈 뿐더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로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도로의 모습에서 일등을 위해 경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경쟁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를 미루어 보아 경쟁에서 승리할 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를 통해 길은 사람이나 차가 반복적으로 다니며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② (라)를 통해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편안한 관계를 맺고 소통할 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거실을 가꾸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통해 공간이 사람의 마음가짐과 정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다)를 통해 주변 환경에 관심을 주지 않고 홀로 나아가는 도로의 모습이, 경쟁하듯 달려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닮았음을 알 수 있다.

05 길(㉠)은 지형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져 울퉁불퉁하거나 구불구불하다. 반면 도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고, 때로는 마을 사이를 끊거나 산을 깎아 만들기도 한다. 이처럼 주변과 어우러지지 않는 도로의 모습은 일등을 위해 경쟁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 따라서 경쟁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닮은 것은 길(㉠)이 아닌 도로(㉡)이다.

06 <보기>는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밝힌 것으로, 이는 추론하며 읽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글쓴이가 공간과 관련한 공부를 한 선생님이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공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려는 의도로 글을 썼음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가 공간과 교육에 관심이 있는 것과, 글쓴이가 독자들이 다양한 관심사를 갖기를 바란다는 것은 연관성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③ 글쓴이가 소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통하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④ 글쓴이가 여러 책을 쓴 것을 통해 글쓴이의 글쓰기 경험이 풍부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지만, 이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올바른 글쓰기 방법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⑤ 글쓴이가 공간을 가꾸면 행동이 바뀌고 그에 따라 삶이 바뀐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07 기사를 추론하여 읽으면 글 내용에 집중하며 읽게 되어 글을 더 꼼꼼하게 읽을 수 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용과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글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추론하며 읽기를 통해 글쓰기 경험을 풍부하게 하기는 어렵다.

08 이 글은 전철과 도로 위의 위험 상황을 제시하며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안전 교육’이다.

09 옷 가게에서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말은 옷을 훔치지 말아 달라는 의미, 옷을 입어 본 후 제자리에 놓아 달라는 의미, 옷을 훼손하지 말아 달라는 의미 등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할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양심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10 <보기>의 상황에서 “지금 몇 시니?”라는 ‘엄마’의 발화는 학교에 갈 시간이 다 되었으니 얼른 일어나라는 의미로 추론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승우’는 “네, 얼른 일어날게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11 이 강연은 오만 원권 지폐에 실려 있는 신사임당의 그림 「포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만 원권 지폐에 실려 있는 그림이 달라진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희망 중학교 학생들’에게 인사하는 대목을 통해 이 강연의 청중이 희망 중학교 학생임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방과 후에도 강연을 듣기 위해 강당에 찾아와 주어 고맙다고 한 대목을 통해 강연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가 방과 후 강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화자를 소개한 부분을 통해 화자가 대학교에서 한국 회화사를 전공하고 ○○ 박물관에서 국가유산을 연구하는 연구원임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신사임당의 「포도」 그림을 시각 자료로 직접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12 (나)에서 오만 원권 지폐 속 「포도」 그림에서는, ‘녹색의 큰 포도 잎’과 ‘알알이 다른 색으로 칠해진 포도송이’를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오만 원권 지폐 속 「포도」 그림이 검은 빛깔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설명은 이 강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다)를 통해 신사임당이 포도를 세밀하게 관찰했음을 알 수 있다.
 ②, ③ (나)를 통해 신사임당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예술가이면서 조선 시대 학자 이이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나)를 통해 오만 원권 앞면에 신사임당의 얼굴과 「포도」 그림이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은 오만 원권에 실린 「포도」 그림을 확대한 화면이다. 화자는 지폐를 확인해 보고 싶은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을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다. 화자는 청중이 관심을 보일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 흥미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강연에서 다른 그림을 시각 자료로 보여 줌으로써 청중이 강연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오답 풀이 ㄱ. 이 강연에서는 「포도」 그림이 지폐에 실리게 된 과정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

ㄴ. 오만 원권 지폐는 청중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전문성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한 걸음 더 서술형 문제

158~159쪽

01 방은 깨끗하게 정리한다. 거실은 텔레비전과 휴대 전화를 치우고 책장과 식물을 놓아 둔다.

02 ‘옛날 골목길’은 소통의 공간이자 삶의 공간이었다. 동네에 ‘옛날 골목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 생기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서로 소통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03 ㉠ 점심시간, 학교 체육관

㉡ 선생님이 체육관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물어보는 의미이다.

04 ㉠ 점심시간이어서 은행 업무를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업무를 중단하고 밥을 먹으러 가자는 의미이다.

05 ㉠ 쉽고 재미있다

㉡ 뛰어난 관찰자가 되어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01 ㉠은 ‘집’을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나)에서는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다)에서는 ‘거실’에 텔레비전과 휴대 전화 대신 책장과 식물을 놓아두면 가족들과 소통할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함을 썼다.	☐
‘거실’을 소통의 공간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썼다.	☐

02 ㉠은 글쓴이가 동네에 생기기를 바라는 공간이다. (가)에서 ‘옛날 골목길’은 소통의 공간이자 이웃과 정겹게 살아가는 삶의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에서 ‘옛날 골목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 속에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옛날 골목길’의 특징을 알맞게 설명하였다.	☐
‘옛날 골목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 생기므로써 동네에 생기는 변화를 알맞게 설명하였다.	☐

- 03 <보기>를 통해,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점심시간’이며, 장소는 ‘학교 체육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학생이 체육관에 있는 선생님을 보고 말하는 상황’이라는 맥락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발화는 선생님이 체육관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물어보는 의미로 추론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를 알맞게 찾아 썼다.	☐
담화의 상황 맥락을 바탕으로 밑줄 친 발화의 의미를 적절하게 추론하여 썼다.	☐

- 04 (가)와 (나)에서 말하는 사람은 각각 ‘은행원’과 ‘회사원’이며 듣는 사람은 ‘고객’과 ‘동료’이다. 또한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각각 ‘은행 창구’와 ‘사무실’이며,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12시’로 동일하다. 이와 같은 상황 맥락을 바탕으로 발화의 의미를 추론할 때, ㉠은 점심시간이어서 지금은 은행 업무를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고, ㉡은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잠시 업무를 중단하고 함께 밥을 먹으러 가자는 의미임을 추론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은 은행 업무를 보기 어렵다는 의미임을 썼다.	☐
㉡은 업무를 중단하고 밥을 먹으러 가자는 의미임을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 05 화자는 (가)에서 신사임당의 뛰어난 관찰력을 강조하고, (나)에서 옛 그림을 감상하는 모든 사람이 뛰어난 관찰자가 되어 보기를 당부하고 있다. 화자가 “옛 그림이 지루하고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죠?”라고 말한 것을 미루어 보아, 화자는 옛 그림이 쉽고 재미있다(㉠)는 관점을 가졌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화자가 “여러분도 선조들의 옛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화자는 옛 그림을 감상할 때는 뛰어난 관찰자가 되어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은 쉽고 재미있다는 내용을 썼다.	☐
㉡은 그림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문장의 앞뒤 맥락을 고려하여 ㉠과 ㉡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썼다.	☐

한 걸음 더 고득점 문제

160~163쪽

01 ④ 02 ③ 03 ① 04 ① 05 ③ 06 ⑤

07 ⑤ 08 ④ 09 ⑤ 10 ② 11 ③ 12 ③

13 옛 그림을 감상할 때는 세밀하게 관찰하자.

- 01 (가)에서는 공간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전달하고 있으며, (나)와 (다)에서는 거실과 동네의 공간을 가꾸어 소통의 공간을 만들자는 관점을 전달하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이 글의 주제는 공간을 가꾸고 사람들과 소통하여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자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에 적합한 표어는 공간을 가꾸면 행복이 다가온다는 의미를 지닌 ④이다.

- 02 (나)는 텔레비전과 휴대 전화를 치우고 거실에 책장과 식물 등을 놓는다면 거실이 소통의 공간이 되어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대중 매체에 빠져 독서를 게을리한다는 내용을 추론하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② 가족과 어떻게 소통해 왔는지 떠올리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기사를 통해 알게 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거실을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글쓴이의 의도를 적절하게 추론하고 있다.

- 03 (다)는 동네에 옛날 골목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 생긴다면 이웃 간의 소통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삶의 여유, 이웃을 대하는 배려, 공동체 의식 등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은 독자는 글쓴이의 관점을 바탕으로, 옛날 골목길처럼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글쓴이는 자신이 바라는 공간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③, ⑤ 글쓴이가 ‘동네 사람들이 함께 아이를 돌봐 줄 수 있는 공간’,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언급한 것은 동네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아이를 돌봐 주는 제도의 필요성이나 예술과 관련하여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소통의 측면에서 ‘옛날 골목길’을 다루고 있을 뿐, 옛날의 풍경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수필의 종류

	경수필	중수필
뜻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일들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등을 가볍게 쓴 수필	사회적인 문제나 관심거리에 대한 무거운 내용을 주제로 쓴 수필
성격	주관적, 감성적, 신변잡기적	객관적, 논리적, 사회적
특징	일상적 소재를 다루며 문장이 가볍고 부드러운	사회적, 시사적 문제를 다루며 문장이 무겁고 딱딱함
종류	개인적 수필, 일기, 편지, 기행문 등	칼럼, 평론 등

04 ㉠에서 전철 에스컬레이터 넘어짐 사고에 대한 치료비 지급 건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전철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치료비 지급률과 관련된 의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② ㉡에서는 현실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에서 경찰청의 통계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④ ㉣에서 서울시의 설문 조사 결과를 도표로 보여 줌으로써 안전 불감증 수준이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다.
 ⑤ ㉤에서 권위 있는 기관인 통계청의 통계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05 글쓴이는 우리 사회에 퍼진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을 보여 주거나,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입장이 담긴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전국에서 발생한 무단 횡단 사고 건수(㉠)'와 '응급 상황 시 대처 방법을 알고 있는 시민의 비율(㉡)'은 글쓴이의 의도와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OO시 전동 킥보드 운영 업체의 수(㉢)'와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에너지 소모량(㉣)'은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이나 안전 교육의 필요성과는 거리가 멀다.

06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과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담은 이 글을 읽은 독자는 안전한 생활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인도에 세워 놓은 전기 자전거를 보고 환경 미화에 대한 건의 사항을 떠올리고 있는 ⑤는 글쓴이가 기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읽기의 과정에 따른 원리

- 읽기 전: 읽는 목적 확인하기, 예측하기, 배경지식 떠올리며 질문 만들어 보기 등
- 읽는 중: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 확인하기, 미리 만들었던 질문의 답 찾기, 각 부분의 내용 요약하기, 중심 내용 파악하기, 글쓴이의 관점과 태도 파악하기 등
- 읽은 후: 내용 요약하기, 내용 구조도 만들기, 알게 된 내용 및 더 알고 싶은 내용 정리하기, 관련된 다른 글 찾아 읽기, 읽기 과정 점검하기 등

07 <보기>에서 '출연자'는 '프로듀서'에게 촬영 내용 중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자신이 내키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발화 의도를 고려한다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듀서'는 '출연자'에게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대답을 할 수 있다.

08 <보기>의 첫 번째 장면에서 '주희'가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엄마'의 발화는 일어나지 않는 '주희'를 나무라며 얼른 일어나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두 번째 장면에서 '주희'가 학교 앞 신호등의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민영'에게 다가가 말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주희'의 발화는 등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보는 의미임을 추론할 수 있다.

09 (가)에서 '아빠'는 손으로 부채질을 하는 행동과 창문을 바라보는 시선을 고려하여 '딸'의 발화 의도를 추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빠'는 창문을 열어 달라는 '딸'의 발화 의도에 맞는 대답을 한다. 반면 (나)에서 '아내'는 몸을 웅크리는 행동과 열려 있는 창문을 바라보는 시선을 고려하지 않아서 '남편'의 발화 의도를 적절하게 추론하지 못하고, 상황 맥락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한다. 따라서 (가)의 '아빠'는 (나)의 '아내'에게 말하는 사람의 행동과 시선을 고려하여 발화 의도를 추론해 볼 것을 조언할 수 있다.

10 <보기>는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말의 의미가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같은 말이라도 언제, 어디에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1 화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포도」 그림 보여 주면서 신사임당의 뛰어난 예술성과 관찰력을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신사임당이 포도를 세밀하게 관찰했듯이 청중 또한 옛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강연에서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옛 그림을 감상하는 습관을 갖기를 바란다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12 이 강연에서는 신사임당의 「포도」 그림을 설명하며 옛 그림을 감상할 때는 자세히 살펴보고 관찰자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신사임당이 「포도」 그림을 그린 이유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② 신사임당이 뛰어난 관찰력을 바탕으로 「포도」 그림을 세밀하게 표현하였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④ 강연자는 질문을 통해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강연에 집중하도록 돕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⑤ 강연자는 옛 그림을 자세히 관찰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청중이 그림을 감상하고 싶어진 것은 적절한 반응이다.

13 (나)와 (다)에서는 신사임당이 포도의 생태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연구하여 그림을 그렸음을 말하고 있다. (라)에서는 청중들도 신사임당처럼 뛰어난 관찰자가 되어 옛 그림을 감상하기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이 강연을 통해서 강연자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3 다채로운 우리말 어휘

01 단어가 만들어지는 원리

소단원 한눈에 보기

168~169쪽

1 (1) 형태소 (2) 의존 (3) 형식 (4) 분리

2 (1) ○ (2) × (3) ○ (4) ×

3 (1) 아버지 (2) 물병 (3) 드넓다

4 (1) 외국어 (2) 합성, 파생 (3) 줄임말

5 (1) 우리말 (2) 의미 (3) 이해

활동 응용 문제

174~185쪽

1 ② 2 단어: 할아버지, 와, 눈발, 예, 가다 / 형태소: 할아버지,

와, 눈, 발, 예, 가-, -다

3 ③

4 ④

5 ③

6 (1) 맨-(접사)+손(어근) (2) 겹(어근)+-쟁이(접사) 7 ⑤

8 ⑤

9 ①

10 (1) 합성어 (2) 파생어 (3) 합성어

11 ⑤

12 사회의 변화

13 ③

14 ④

15 ④

16 ②

17 단어의 짜임

18 ⑤

- 1 단어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과,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모든 단어가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조사

조사는 주로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붙어서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은, 는, 이, 가’ 등과 같은 단어이다.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지만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로 단어에 해당한다.

- 2 문장을 단어로 나누려면 띄어 쓴 단위로 나누고, 조사를 분리하면 된다. 따라서 ‘할아버지, 와, 눈발, 예, 가다’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형태소 단위로 나누려면 조사 외에도 의미가 있는 것을 나누면 된다. 따라서 ‘할아버지, 와, 눈, 발, 예, 가-, -다’로 나눌 수 있다.
- 3 ‘봄바람이 얼굴을 스친다’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면 ‘봄, 바람, 이, 얼굴, 을, 스치-, -ㄴ-, -다’로 나눌 수 있으므로, 형태소는 총 8개이다.
- 4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라고 한다. 제시된 단어 중 ‘예서’는 조사로, 홀로 쓰일 수 없어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오답 풀이 ‘낮’, ‘꽃’, ‘바람’, ‘동생’은 모두 홀로 쓰일 수 있으므로 자립 형태소이다.

- 5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고, 일부 어근에 붙어서 그 의미를 제한하거나 단어의 품사를 바꾸는 등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문법적 기능을 하는 주변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 6 (1) ‘맨손’은 ‘맨-’과 ‘손’이 결합한 단어로,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은 ‘손’이다. 따라서 ‘맨-’은 접사, ‘손’은 어근에 해당한다.
- (2) 겹쟁이는 ‘겹’과 ‘-쟁이’가 결합한 단어로,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은 ‘겹’이다. 따라서 ‘겹’은 어근, ‘-쟁이’는 접사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접사의 종류

- 접두사: 어근의 앞에 붙어 그 의미를 제한하는 접사
예 ‘맨손’의 ‘맨-’, ‘웃사과’의 ‘웃-’
- 접미사: 어근의 뒤에 붙어 그 의미를 제한하는 접사
예 ‘선생님’의 ‘-님’, ‘지우개’의 ‘-개’

- 7 ‘임금님’은 ‘임금’과 ‘-님’이 결합한 단어로,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은 ‘임금’이고, ‘-님’은 어근에 붙는 접사이다. 따라서 ‘임금님’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강물’은 ‘강’과 ‘물’로, ‘떡국’은 ‘떡’과 ‘국’으로, ‘돌다리’는 ‘돌’과 ‘다리’로, ‘책가방’은 ‘책’과 ‘가방’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이다. 따라서 ‘강물’, ‘떡국’, ‘돌다리’, ‘책가방’은 모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 8 ‘옛보다’는 ‘옛-’과 ‘보다’가 결합한 단어로,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은 ‘보다’이고, ‘옛-’은 어근에 붙는 접사이다. 따라서 ‘옛보다’는 접사 ‘옛-’과 어근 ‘보다’로 분석할 수 있다.

- 9 ‘치솟다’는 ‘위쪽으로 힘차게 솟다.’라는 뜻이고, ‘치프다’는 ‘눈을 위쪽으로 뜨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접사 ‘치-’는 ‘위로 향하게’ 또는 ‘위로 올려’의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② ‘헛고생’은 ‘아무런 보람도 없이 고생함. 또는 그런 고생.’이라는 뜻이고, ‘헛수고’는 ‘아무 보람도 없이 애를 씀. 또는 그런 수고.’라는 뜻이다. 따라서 접사 ‘헛-’은 ‘이유 없는’,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한다.

③ ‘부채질’은 ‘부채를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는 일.’이라는 뜻이고, ‘가위질’은 ‘가위로 자르거나 오리는 일.’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접사 ‘-질’은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한다.

④ ‘지우개’는 ‘글씨나 그림 따위를 지우는 물건.’이라는 뜻이고, ‘베개’는 ‘잠을 자거나 누울 때에 머리를 괴는 물건.’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접사 ‘-개’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한다.

⑤ ‘날고기’는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고기.’라는 뜻이고, ‘날것’은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먹을거리.’라는 뜻이다. 따라서 접사 ‘날-’은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의 뜻을 더한다.

- 10 (1) '빵집'은 '빵을 만들어 파는 집.'이라는 의미로, '빵'과 '집'은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에 해당한다. 따라서 '빵집'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2) '몸집'은 '몸의 부피.'라는 의미로, '몸'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이며, '-집'은 '크기' 또는 '부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몸집'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3) '초가집'은 '짚이나 갈대 따위로 지붕을 인 집.'이라는 의미로, '초가'와 '집'은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에 해당한다. 따라서 '초가집'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11 새말은 '둘레길'(어근 '둘레'와 어근 '길'의 결합), '배낭족'(어근 '배낭'과 접사 '-족'의 결합)처럼 이미 있던 단어를 합성하거나 파생하여 만들 수 있다.

12 제시된 글에 따르면 새말은 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 사용하는 말이다. 이러한 새말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그대로 가져오는 방법, 우리말로 다듬는 방법, 이미 있던 단어를 바탕으로 합성법이나 파생법을 활용한 방법, 첫 글자를 결합하거나 단어의 일부분을 따서 줄임말로 만드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13 '숯강스'는 우리말 '숯'과 외국어 '바캉스'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하여 만들어진 새말이다.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우리말로 다듬는 방법으로는 '네티즌(netizen)'을 우리말로 다듬은 '누리꾼', '이북(e-book)'을 우리말로 다듬은 '전자책'을 예로 들 수 있다.

14 편세권(편의점+역세권)은 각 단어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한 새말인 반면, ① 취존(취향 존중), ② 맛집(맛있는 점심), ③ 혼밥(혼자 밥을 먹음.), 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새말이다.

15 최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늘어나면서 의사소통을 빠르게 하기 위해 줄임말을 사용한 새말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또 긴 글을 읽기 어려워하는 언어 사용자들이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 오답 풀이** ① 세대 간 소통할 기회가 많고 적은 것은 줄임말을 사용한 새말과는 관련이 없다.
 ② 우리말에 서투른 언어 사용자들이 증가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우리말에 서투르다면 줄임말에도 서투를 것이므로 줄임말을 사용한 새말과는 관련이 없다.
 ③ 줄임말 사용과 정확한 의사 표현은 관련이 없다.
 ⑤ 줄임말을 사용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말이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16 새말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적절한 새말인지 기준을 세우고 평가해 보아야 한다. 새말의 평가 기준으로는 의미를 잘 전달하는지, 우리말을 해치지 않는지 등이 있으나, 가져온 외국어가 선진국의 언어인지는 새말의 의미나 우리말에 대한 영향력과 관련이 없으므로 점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17 외국어에서 가져온 말을 우리말로 다듬을 때 합성이나 파생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우리말 단어의 짜임에 맞게 다듬는 것이다.

18 새말을 사용할 때 외국어에서 가져온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말로 다듬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어려운 외국어를 새말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해력 키우기

187쪽

- 1 의존 2 합성 3 파생 4 자립 5 선호한다
 6 정착해야 7 구분하면 8 등록해서 9 원리 10 분류
 11 변화 12 상태

확인 문제

189쪽

- 1 × 2 ○ 3 × 4 ㉠ 5 ㉡ 6 ㉢
 7 만들어 8 뜻 9 결합하여 10 외국어, 우리말

발전 활동 「새말, 사회와 문화를 담다」

활동 응용 문제

190~191쪽

- 1 ④ 2 ②

1 새말이 만들어지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면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며 우리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언어 사용자들이 그 말을 선호하지 않으면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유행어로 취급받게 된다. 즉 새말이 사람들에게 계속 사용되지 않으면 유행어 취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새말이 유행어가 되면 우리말 단어로 정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새말은 우리 사회의 언어 사용 양상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였으므로, 그 사회와 문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새말은 얼마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지 등의 검증을 거쳐 일부는 사전에 등재되기도 한다.
 ③ 새로 만든 단어가 신문이나 방송 등에 자주 노출되어 대중적으로 쓰이면 우리말 단어로 정착하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였다.
 ⑤ 새말은 언어 사용자들이 그 말을 선호하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는다.

- 2 새말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일부 집단이 아닌 여러 사람이 보편적으로, 자주 사용해야 한다. 또 사회와 문화의 모습을 담고 있어야 하며 누구든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언어 사용자들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새로 만든 단어가 신문, 방송과 같은 매체에 자주 노출되면 우리말 단어로 정착하는 속도가 빨라지기도 한다.

소단원 평가

192~195쪽

- 01 ⑤ 02 ㉠ 형태소 ㉡ 뜻 03 ③ 04 ㉠ 꽃, 발, 강아지
㉡ 꽃, 발, 강아지, 보- 05 ③ 06 ㉠ 별, 고사리 ㉡ 낮
잠, 오가다 ㉢ 나무꾼, 새파랗다 07 ④ 08 ③ 09 ⑤
10 ④ 11 누리(어근) + -꾼(접사) → 파생어 12 ⑤
13 ③ 14 ④ 15 ④ 16 ② 17 ②

- 01 '산딸기'는 '산'과 '딸기'로 나누어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산'을 'ㅅ', 'ㅊ', 'ㄴ'처럼 나누거나, '딸기'를 '딸'과 '기'로 더 나눈다면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③ 제시된 표로 보아, 문장은 단어로, 단어는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② 제시된 표에서 '가'를 단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홀로 쓸 수 없어 단어로 인정함을 알 수 있다. 단어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과,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을 의미한다.

④ 제시된 표에서 단어 '달다'는 형태소 '달-', '-다'로 나누고 있다.

- 02 제시된 표에 따르면 '산', '딸기', '가', '달-', '-다'는 형태소에 해당한다. 형태소를 한 번 더 나누면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형태소는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 03 <보기>에서 '가-'는 장소를 이동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다.

오답 풀이 ①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는 '동생', '학교'로 2개이다.

② 홀로 쓰일 수 없어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의존 형태소는 '이', '에', '가-', '-ㄴ-', '-ㄹ-', '-다'로 5개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는 '이', '에', '-ㄴ-', '-ㄹ-', '-다'로 4개이다.

④ '동생'과 '학교'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⑤ '이'는 홀로 쓰일 수 없는 조사로 의존 형태소이다.

참고 자료

형태소의 종류

- 홀로 쓰일 수 있는지에 따라

자립 형태소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 동생, 학교
의존 형태소	홀로 쓰일 수 없어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형태소 ㉡ 이, 에, 가-, -ㄴ-, -ㄹ-, -다

-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소 ㉠ 동생, 학교, 가-
형식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 ㉡ 이, 에, -ㄴ-, -ㄹ-, -다

- 04 <보기>의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면 '꽃', '발', '에서', '강아지', '를', '보-', '-았-', '-다'이다. 이 중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는 '꽃', '발', '강아지'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실질 형태소는 '꽃', '발', '강아지', '보-', '-다'이다.

- 05 '감나무'는 감 열매가 열리는 나무로, '감'과 '나무'는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논밭'은 논과 밭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논', '밭'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에 해당한다.

② '맨발'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이라는 의미로, 어근에 붙는 접사 '맨-'과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 '발'이 결합한 단어이다.

④ '헛고생'은 '아무런 보람도 없이 고생함. 또는 그런 고생'이라는 의미로, 어근에 붙는 접사 '헛-'과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 '고생'이 결합한 단어이다.

⑤ '장난꾸러기'는 '장난이 심한 아이. 또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 '장난'과 어근에 붙는 접사 '-꾸러기'가 결합한 단어이다.

- 06 <보기> 중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구성된 '별'과 '고사리'이다. 합성어는 어근 '낮'과 어근 '잠'이 결합한 '낮잠'과 어근 '오-'와 어근 '가다'가 결합한 '오가다'이다. 파생어는 어근 '나무'와 접사 '-꾼'이 결합한 '나무꾼'과 접사 '새-'와 어근 '파랗다'가 결합한 '새파랗다'이다.

참고 자료

단어의 짜임

단일어	어근이 한 개인 단어 ㉠ 별, 고사리	
복합어	합성어	어근이 둘 이상인 단어 ㉡ 낮잠, 오가다
	파생어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 ㉢ 나무꾼, 새파랗다

07 <보기>에 제시된 단어는 모두 접사 ‘-질’을 포함하고 있다. ‘가위질’은 가위로 하는 일, ‘부채질’은 부채로 하는 일, ‘빗질’은 빗으로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접사 ‘-질’은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08 <보기>는 ‘내’와 ‘물’이 결합할 때 ‘내물’이 아닌 ‘넷물’이 되고, ‘나무’와 ‘잎’이 결합할 때 ‘나무잎’이 아닌 ‘나뭇잎’이 되는 것을 보여 준다. 즉 단어가 결합하면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 ‘ㅅ’이 첨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술’과 ‘나무’가 결합할 때는 ‘술나무’가 아닌 ‘소나무’가 되고, ‘아들’과 ‘-님’이 결합할 때는 ‘아들님’이 아닌 ‘아드님’이 되는 것을 통해 단어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할 수도 있음이 나타난다. 즉 <보기>는 파생어나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보여 준다.

09 ‘개떡’은 노개, 나개, 보릿겨 따위를 반죽하여 아무렇게나 반대기를 지어 찢 떡을 의미한다. 이때의 ‘개-’는 ‘질이 떨어지는’의 의미를 가지는 접사이므로 ‘개떡’은 파생어이다.

- 오답 풀이** ① 명사 ‘개’는 단일어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이 될 수 있다.
 ② 접사 ‘개-’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의미를 지니므로 홀로 단어를 이루지 못한다.
 ③ ‘개집’은 개가 들어가 사는 작은 집이라는 의미로, 이때의 ‘개’와 ‘집’은 모두 어근으로 합성어이다.
 ④ ‘개떡’의 의미로 미루어 보아, ‘개-’는 ‘질이 떨어지는’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10 새말은 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말인데, 이러한 새말은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새말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그대로 가져오기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또한 새말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새말을 만드는 방법

-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그대로 가져오는 방법
 ㉠ 네티즌(netizen), 이북(e-book)
-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방법 ㉡ 누리꾼, 전자책
- 이미 있던 단어를 바탕으로 합성법이나 파생법을 활용한 방법
 ㉢ 돌레길, 배낭족
- 줄임말로 만드는 방법 ㉣ 많관부, 웃프다

11 ‘누리꾼’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 ‘누리’와 어근에 붙어서 쓰이는 접사 ‘-꾼’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12 ‘캥거루족’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 ‘캥거루’와 어근에 붙어서 쓰이는 접사 ‘-족’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에 해당한다. ‘떡부심’은 ‘떡다’의 ‘떡’과 ‘자부심’의 ‘부심’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각 단어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한 ㉡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엄지족’은 어근 ‘엄지’와 접사 ‘-족’이 결합한 파생어에 해당한다. ‘캠맹’은 ‘컴퓨터’와 ‘맹인’의 첫머리에 나오는 글자를 결합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② ‘꽃미남’은 어근 ‘꽃’과 어근 ‘미남’이 결합한 합성어에 해당한다. ‘강추’는 ‘강력’과 ‘추천’의 첫머리에 나오는 글자를 결합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③ ‘스마트폰’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그대로 가져온 새말이고, ‘슌캉스’는 ‘슌’과 ‘바캉스’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한 단어이다.

④ ‘따라쟁이’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 ‘따라-’와 접사 ‘-쟁이’가 결합한 파생어에 해당한다. ‘열공’은 ‘열심히’와 ‘공부’의 첫머리에 나오는 글자를 결합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13 최근에는 줄임말로 새말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늘어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 글에 따르면 줄임말로 만들어진 새말은 우리말의 단어의 짜임에 맞지 않아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므로, 우리말 단어의 짜임을 지키기 위해서 줄임말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4 이 대화에서 학생들은 ‘내비게이션’이나 ‘바우처’와 같이 의미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외국어는 우리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외국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말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바우처’라는 단어는 ‘이용권’이라는 우리말로 쓸 수 있는데 굳이 외국어를 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② ‘바우처’와 같이 의미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외국어를 굳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③ ‘내시피’와 같이 고유어와 외국어를 섞어 만든 새말은 의미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⑤ ‘내비게이션’과 같이 원래 뜻에서 벗어나 의미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외국어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15 ‘갓생’은 고유어와 외국어를 섞어서 만든 말로, 대화에서 말한 ‘내시피’와 같이 의미를 쉽게 알 수 없어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성을 평가한다면 ‘바른 생활’ 또는 ‘멋진 인생’과 같은 우리말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새말이 언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인터넷을 비롯한 일상에서도 계속 사용되면 사람들은 새말을 우리말 단어로 여기게 된다. 즉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새말을 우리말 단어로 여기게 되는 것은 그만큼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17 이 글은 어떤 단어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단어를 계속 사용해야만 새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또 이미 새말로 인정받은 단어라도 언어 사용자들이 그 말을 선호하지 않으면 새말로서의 생명력을 잃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새말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언어 사용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02 우리 주변의 다양한 어휘

소단원 한눈에 보기

198~199쪽

- 1 (1) ○ (2) × (3) ×
- 2 (1) 청소년어, 기성세대 (2) 전문어 (3) 인터넷
- 3 (1) 기성세대 언어 (2) 새말
- 4 (1) 오늘 (2) 전문적 (3) 영어 (4) 인터넷
- 5 (1) 분야 (2) 보편적 (3) 새말 (4) 소통

스스로 확인하기

202~213쪽

- (1) ○ (2) ○ (3) × (4) 청소년, 기성세대 (5) × (6) × (7) ○
- (8) 전문적 (9) ○ (10) ○ (11) × (12) 매체별 (13) ○ (14) ○ (15) ×
- (16) 표준국어대사전 (17) 우리말샘 (18) 듣는, 말하는

내용 확인 문제

202~213쪽

- 1 매우 깊고 간절한 사과 2 ① 3 ④ 4 ④ 5 ②
- 6 의미 7 ③ 8 ⑤ 9 아무 때나 무분별하게 쓰지 않아야 한다. 10 ④ 11 ② 12 ⑤

- 1 '심심하다'는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의미로, '심심한 사과'는 매우 깊고 간절한 사과라는 뜻이다.
- 2 (가)의 '깨비'의 초대장에서는 '생파(생일 파티), 생선(생일 선물), 생축(생일 축하)'과 같은 줄임말이 많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②, ③ 예의를 갖춘 표현과 한자어 표현은 기성세대 언어의 특징으로, (나)의 '깨비 아버지'의 초대장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④ '깨비'는 청소년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와 (나)의 초대장은 세대별 어휘의 차이점을 보여 주고 있으며, 대화 상대의 성별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 3 청소년인 '깨비'가 기성세대인 '깨비 아버지'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의 언어 사용자가 사용하는 어휘를 이해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어휘를 상대방에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누구나 아는 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청소년어를 주로 사용하여 대화한다면 기성세대인 '깨비 아버지'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 4 전문어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로, 해당 전문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오답 풀이 ① 전문어는 유행처럼 쓰다가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쓰는 말이다.

② 해당 분야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평소에 텔레비전을 통해 전문어를 접할 수 있지만, 매체에서 전문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한다.

③ 전문어는 일상에서 꼭 필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해당 전문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⑤ 시대의 변화로 새로운 직업이 생기면 이에 따른 전문어도 새로 생긴다.

- 5 전문어는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한 말로, 의미가 구체적이어서 짧은 말로도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전문어에 한자어나 외국어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전문어 사용을 통해 한자어나 외국어에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6 전문어에는 한자어나 외국어가 많고,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말이므로 전문어를 쓰는 분야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어를 쉽게 풀어서 쓰면 누구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7 인터넷 언어는 인터넷상에서 쓰는 음성, 문자, 그림 문자를 의미하므로, 문자 언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 8 인터넷 언어는 전달하려는 내용을 빠르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여러 세대를 대상으로 예의를 갖춰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언어는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9 인터넷 언어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며 우리의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해 주기는 하지만, 우리말을 파괴하거나 예의에 어긋난 표현도 많으므로 아무 때나 무분별하게 쓰지 말아야 한다.
- 10 세대별, 분야별, 매체별 어휘를 평소에 주로 사용하더라도, 대화하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대방에 따라 다른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인터넷 언어도 우리의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해 주는 어휘이다. 단, 아무 때나 무분별하게 쓰지 않아야 한다. ② 청소년어나 기성세대 언어는 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생겨나기도, 사라지기도 한다. ③ 시대의 변화로 전문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전문어가 새로 생기고 있다. ⑤ 전문어는 같은 분야에 속한 사람들끼리는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나 다른 분야의 사람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 11 우리말 어휘 중 '조출하다'는 호젓하고 단출하다는 뜻으로, 주로 기성세대에서 쓰는 기성세대 언어이다.
- 12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정확한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다.

활동 응용 문제

214~215쪽

1 ① 2 ⑤ 3 ⑤

- (나)의 '남학생'은 '캐리', '브이로그'와 같은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언어는 인터넷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며,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은 전문어에 해당한다.
- ㉠에서는 '월드 스프린트 훈련'이라고 하였고, ㉡에서는 '호흡 능력과 지구력을 높이는 훈련'이라고 하였다. 즉 ㉠은 전문어를 사용하였고, ㉡은 전문어를 쉽게 풀어 썼다. 전문어는 분야별 어휘에 해당하므로 해당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 ㉢은 이를 고려하여 전문어를 풀어 쓴 것이다.
- 우리말 어휘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한다. 따라서 새로운 어휘의 사용을 지양하는 태도는 옳지 않으며, 다양한 집단과 사회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양한 어휘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문해력 키우기

217쪽

1 성취 2 금일 3 증상 4 사상 5 × 6 ×
7 ○ 8 ○ 9 ㉠ 10 ㉡ 11 ㉢ 12 ㉣

확인 문제

219쪽

1 ○ 2 × 3 × 4 ○ 5 어휘 6 전문어
7 청소년어 8 ㉡ 9 ㉣ 10 ㉠

발전 활동 전문어 바꾸어 써 보기

활동 응용 문제

220~221쪽

1 ⑤ 2 ⑤

- '나눔표 교수'는 전문어를 사용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학생'은 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학생'이 '교수'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학생'이 '교수'와 같은 집단이 아니라 해당 어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교수'는 자신의 분야에서 쓰는 전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음악 분야를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② '교수'는 음악 관련 전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집단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

- ③ 음악에 관심이 없는 시청자들은 '교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 이므로, '학생'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 ④ '학생'은 전문어가 쓰인 '교수'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 2 전문어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려고 쓰는 어휘이다. 전문어에는 한자어나 외국어가 많기 때문에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여 의미를 추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평가

222~225쪽

01 ② 02 ⑤ 03 ③ 04 ③ 05 ④ 06 같은 집
단 이외의 사람에게 전문어를 쓰면 소통하기가 어려워진다. 07 ④
08 ④ 09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10 ② 11 ④
12 ② 13 ① 14 독백, 타이트 샷, 롱 테이크

- 01 이 글에서는 시대가 변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청소년어가 생기기도 하고, 유행어처럼 쓰던 청소년어가 사라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어휘는 계속 생겨나고 변화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지금의 어휘를 변함없이 계속 쓸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어휘가 쓰이는 모습은 다양하다고 하였다. ③, ④ 나이가 든 어른은 청소년어를, 청소년은 기성세대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 의사소통이 더 원활해질 것이다. ⑤ 이 글에서는 세대별 어휘의 차이로 인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 02 (나)에는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과'로 오해한 상황과, '금일까지 제출'을 '금요일까지 제출'로, '유선 상으로 안내'를 '유선상이라는 사람이 안내'한 것으로 오해한 상황이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다)를 통해 알 수 있다. (다)에 따르면 어른들은 한자어에 익숙하지만, 10대나 20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 것이다.

- 03 <보기>의 '선생님'은 기성세대이며 '고대하던', '각고', '전심전력', '선의'와 같은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선생님'은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②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거절의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선생님'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예의를 갖추어 말하고 있다. ⑤ '선생님'은 청소년 세대에게 말하고 있지만, 청소년어는 사용하지 않고 기성세대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 04 전문어는 짧은 말로도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 같은 집단 내에서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전문어는 일반 어휘에 비해 의미가 구체적이다. ② 전문어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로, 지역이나 세대별로 사용 방식이 다른 것은 아니다.

- ④ 전문어는 주로 같은 집단 내에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한다.
 ⑤ 전문어는 일반 어휘에 비해 한자어나 외국어가 많이 사용된다.

05 <보기>에서 ‘의사’는 전문어를 사용하여 ‘간호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집단 안에서는 전문어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집단 외의 사람인 환자와 이야기할 때는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어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의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내기 위해 환자에게 전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나)에 따르면 전문어를 쓰면 같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같은 집단 이외의 사람에게 전문어를 쓰면 오히려 소통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07 ㉠은 전문어를 쉽게 풀어 써야 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법률 분야에서 쓰는 전문어인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을 뜻한다. 이와 같은 전문어는 집단 외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어휘이며, 이를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 상황에 해당한다.

08 인터넷 언어는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고, 여러 세대와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언어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9 (다)에 따르면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빠르고 쉽게 입력하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인터넷 언어를 쓴다고 하였다. <보기>의 밑줄 친 이모티콘은 약속에 늦어서 미안한 감정과 괜찮다는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

10 인터넷 언어는 빠르고 재미있게 소통하려고 만든 단어가 많으므로 상황에 따라 언어 예절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대화 상대와 장소,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같은 집단 외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는 전문어로, 인터넷 언어는 사용하는 집단과 관련이 없다.

③ 인터넷 언어에는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④ 인터넷 언어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대화방에서 많이 사용된다.

⑤ 인터넷 언어는 인터넷상에서 쓰는 언어로, 청소년이나 기성세대와 같은 세대와는 관련이 없다.

11 상대방과 소통할 때는 서로 세대가 다르거나 분야가 달라 사용하는 어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를 존중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12 바뀐 강연의 내용은 음악 분야의 전문어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표현하였으므로, 약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3 (가)에는 영화 분야의 전문어가 사용되었으므로,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영화 용어 또는 촬영 기법을 다룬 책과 영상 등의 매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영화의 즐거움을 공책에 정리하는 것은 영화 분야에서 활용되는 전문어를 이해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14 (가)에는 영화 분야의 전문어가 사용되었고 (나)는 이 전문어를 쉬운 말로 풀어서 표현하였다. (가)의 ‘독백’은 (나)에서 ‘혼자 말하는 장면’으로, (가)의 ‘타이트 샷’은 (나)에서 ‘머리끝부터 어깨 끝까지 얼굴 위주로 찍어서’로, (가)의 ‘롱 테이크’는 (나)에서 ‘끊지 않고 길게 이어서’로 풀어 쓰고 있다.

대단원 평가

232~235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③	05 ②	06 ④
07 ②	08 ③	09 ④	10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였다.	11 ⑤	12 ②
		13 ①	14 ⑤	15 ②	16 ④

01 형태소는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형태소도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도 있다.

오답 풀이 ① 형태소는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로 홀로 쓰일 수 있는지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실질적인 의미 없이 다른 형태소에 붙어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한다.

④ 어근이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⑤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과,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되는 말을 의미한다.

02 의존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없어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형태소를 말한다. ‘엿-’은 ‘몰래’의 뜻을 가진 접사로 홀로 쓰일 수 없으므로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식구’, ‘잠’, ‘장난’, ‘무척’은 모두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에 해당한다.

03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다. 따라서 둘 이상의 접사가 사용된 단어가 파생어라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어근은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으로, 홀로 단어를 이룰 수 있다.

② 접사는 일부 어근에 붙어서 그 의미를 제한하거나 단어를 구성하는 문법적 기능을 하는 주변 부분으로, 홀로 단어를 이루지 못하고 어근과 결합하여 단어를 이룬다.

③ 단일어는 어근, 즉 실질 형태소가 하나뿐인 단어이다. 복합어는 어근과 접사 또는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형태소가 둘 이상이다. 따라서 단일어와 복합어의 형태소의 개수가 다르다.

④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04 '새해'는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이라는 뜻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 '새'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이라는 뜻의 어근 '해'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다리', '바람', '고구마'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⑤ '개살구'는 접사 '개-'와 어근 '살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05 <보기>에는 '민무늬'와 '민소매'를 형태소로 분석한 것과 단어의 뜻이 나타나 있다. 접사 '민-'과 어근 '무늬'가 결합한 '민무늬'는 아무 무늬가 없다는 뜻이고, 접사 '민-'과 어근 '소매'가 결합한 '민소매'는 소매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접사 '민-'은 '그것이 없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06 ①의 '참치김밥', '김치김밥', '소고기김밥'은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로, 김밥 앞에 붙은 단어를 통해 김밥의 재료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참치김밥', '김치김밥', '소고기김밥'은 모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로 '김밥'은 어근에 해당한다.

②, ⑤ '참치김밥', '김치김밥', '소고기김밥'은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에 해당한다.

③ '김밥'의 앞에 붙은 단어가 김밥의 재료를 나타내는데, '참치', '김치'는 단일어, '소고기'는 합성어이다.

07 ①의 김밥 이름은 합성의 방법으로 형성된 합성어이다. 반면 '따님'은 어근 '딸'과 접사 '-님'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① '개집'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 '개'와 어근 '집'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③ '둘레길'은 '사물의 테두리나 바깥 언저리.'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 '둘레'와 어근 '길'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④ '오가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 '오-'와 어근 '가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⑤ '전자책'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 '전자'와 어근 '책'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08 '참치김밥'은 어근 '참치'와 어근 '김밥'이 결합한 합성어로, 우리말 단어의 짜임에 맞다. 또한 <보기>의 내용에서 우리말 단어의 짜임에 맞지 않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는 언어 사용자들이 새말을 자주 사용하면 그 말이 우리말 단어로 정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각자 내기가 지금보다 널리 쓰이면 우리말 단어가 될 수도 있다.'

② 김밥의 다양한 이름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므로 새말로서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다.

④ '라볶이'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이므로 우리말 단어로 정착했다고 볼 수 있다.

⑤ 언어 사용자들의 선호에 따라 새말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사용자들이 '쫄볶이' 대신 '쫄면떡볶이'를 많이 쓴다면 '쫄볶이'라는 말은 사라질 수도 있다.

09 이 글에 나타난 새말의 형성 방법은 외국어를 그대로 쓰거나 우리말로 다듬는 방법, 이미 있던 단어를 바탕으로 합성법이나 파생법을 활용하는 방법,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거나 각 단어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하는 방법이 있다. 주로 합성법을 활용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0 <보기>의 '혼밥'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줄임말이다.

11 청소년어나 기성세대 언어 같은 세대별 어휘는 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생겨나기도, 사라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12 '생일'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표준어로, 청소년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생축'은 생일 축하의 줄임말로,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어이다.

③, ④, ⑤ '택'은 '남의 집이나 가정을 높여 이르는 말.', '가없는'은 '끝이 없는.'이라는 뜻, '조출하게'는 '호젓하고 단출하게.'라는 뜻으로, 기성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기성세대 언어이다.

13 업체에서 사용한 '심심(甚深)한 사과'라는 표현은 동음이의어 중 한자어로, '매우 깊고 간절한 사과'라는 의미인데, 사람들은 이를 다른 의미로 오해하였다. 즉 동음이의어인 '심심한'의 의미 중 한자어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다.

14 (가)에서는 전문어에 대해, (나)에서는 인터넷 언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어휘는 (나), 전문적인 개념을 주로 설명하기 위한 어휘는 (가)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전문어는 주로 같은 집단 내에서 사용되고, 인터넷 언어는 비교적 여러 세대와 분야에서 사용된다.

② 전문어는 한자어나 외국어가 많고, 인터넷 언어는 음성, 문자, 그림 문자 등이 많다.

③ 전문어와 인터넷 언어는 모두 우리의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해주는 어휘로 대화 상대와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④ 우리말 어휘는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환경에 따라 새로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15 (가)에서는 전문어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새로 생긴 전문어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개념과 직업이 생기면 이에 따른 전문어도 새로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6 같은 집단 구성원 사이에서 전문어를 쓰면 짧은 말로도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의사와 간호사는 같은 의학 분야에 속해 있으므로 환자의 수술을 준하는 상황은 전문어를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한 걸음 더 서술형 문제

236~237쪽

- 01** 홀로 쓰일 수 있는지에 따라 나누었고, ㉠은 자립 형태소, ㉡은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
- 02** ㉠ 실질, ㉡ 제한, ㉢ 품사, ㉣ 단어
- 03** ㉠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04** '누리꾼'은 이미 있던 단어를 바탕으로 파생법을 활용하여 만든 단어이고, '오운완'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단어이다.
- 05** '나'는 줄임말이 많은 청소년어를 사용하였고, '엄마'는 한자어가 많은 기성세대 언어를 사용하였다.
- 06** 영화 분야의 전문어를 사용하여 ㉠의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나, ㉡의 상황에서는 관객들이 영화감독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 07**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면 빠르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고,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 01** ㉠의 '오늘', '바람'은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고, ㉡의 '은, 이, 많-, -이, 불-, -었-, -다'는 홀로 쓰일 수 없고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평가 기준	확인
'홀로 쓰일 수 있는가'라는 기준을 썼다.	☐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라는 정확한 종류를 썼다.	☐

- 02** 하나의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 하고, 어근에 붙어 그 의미를 제한하거나 품사를 바꾸는 등의 문법적 기능을 하는 주변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어근은 홀로 단어를 이룰 수 있으나 접사는 홀로 단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어근과 결합하여 사용한다.
- 03** ㉠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로 '높(어근) + 푸르다(어근)', '책(어근) + 가방(어근)', '앞(어근) + 뒤(어근)'로 분석할 수 있다. ㉡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로 '치-(접사) + 솟다(어근)', '헛-(접사) + 고생(어근)', '부채(어근) + -질(접사)'로 분석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합성어의 짜임에 대해 썼다.	☐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는 파생어의 짜임에 대해 썼다.	☐

- 04** '누리꾼'은 '누리(어근) + -꾼(접사)'으로 이루어진 새말로, 이미 있던 단어를 바탕으로 파생법을 활용하여 만든 단어이다. '오운완'은 '오늘 운동 완료'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줄임말이다.

평가 기준	확인
파생법을 활용하여 만든 단어라는 내용을 썼다.	☐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단어라는 내용을 썼다.	☐

- 05** 청소년인 '나'는 '문화 상품권'의 줄임말인 '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기성세대인 '엄마'는 '문상(聞喪)'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줄임말과 한자어를 사용한다는 특징을 썼다.	☐
청소년어와 기성세대 언어를 구분하여 썼다.	☐

- 06** 영화감독과 같은 분야에 속해 있는 ㉠의 영화 관계자들은 영화감독의 말을 이해할 수 있으나, ㉡의 일반 관객들은 영화 분야의 전문어를 알지 못하므로 영화감독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같은 전문 분야에 속한 사람들은 전문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같은 집단 이외의 사람들은 전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썼다.	☐

- 07** (가)에서는 일상적인 어휘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고, (나)에서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다.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면 빠르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고,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나)에서 사용한 어휘가 인터넷 언어임을 썼다.	☐
인터넷 언어의 효과를 두 가지 이상 썼다.	☐

한 걸음 더 고득점 문제

238~241쪽

- 01** ⑤ **02** ③ **03** ⑤ **04** ⑤ **05** ④ **06** ④
07 ② **08** ② **09** ② **10** ② **11** ④ **12** ④
13 ④ **14** ⑤ **15** ① **16** ③

- 01** '-다'는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오답 풀이 ① '봄'은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적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이다.

② '이'와 '을'은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자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③ '얼굴'은 실질적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이자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다.

④ '스치-'는 실질적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이자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다.

02 ‘-았-’과 ‘-었-’은 앞에 오는 형태소에 따라, ‘-들-’과 ‘-들-’은 뒤에 오는 형태소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다.

오답 풀이 ①, ② ‘-들-’은 실질적 의미를 지니지만 홀로 쓰일 수 없으며, ‘-았-’과 ‘-었-’도 홀로 쓰일 수 없으므로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⑤ ‘-들-’은 실질적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다.

03 [A]는 형식 형태소, [B]는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 [C]는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를 의미한다. ㉠ ‘에’와 ㉡ ‘는’은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고, ㉢ ‘있-’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이자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 ‘어느’, ㉤ ‘비’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이자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다.

04 메뉴의 이름 중에서 ‘쫄볶이’는 어근 ‘쫄갓’에서 온 ‘쫄’과 어근 ‘볶-’, 접사 ‘-이’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따라서 ‘쫄볶이’는 접사가 ‘-이’ 하나뿐인 파생어이다.

05 ‘가시방석’은 ‘바늘처럼 뾰족하게 둔 것.’이라는 의미의 어근 ‘가시’와 ‘앉을 때 밑에 까는 작은 깔개.’라는 의미의 어근 ‘방석’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각각의 어근이 지닌 의미와 다르게 합성어가 되었을 때는 ‘앉아 있기에 아주 불안스러운 자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의미를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논밭’은 ‘논’과 ‘밭’의 합성어로 ‘논과 밭을 아울러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② ‘앞뒤’는 ‘앞’과 ‘뒤’의 합성어로 ‘앞과 뒤를 아울러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③ ‘물병’은 ‘물’과 ‘병’의 합성어로 ‘물을 넣는 병’을 의미한다.

⑤ ‘감나무’는 ‘감’과 ‘나무’의 합성어로 ‘감나무과의 낙엽 교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은 합성어가 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06 ‘새롭다’는 어근 ‘새’에 접사 ‘-롭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매우 질고 선명하게’라는 뜻을 더하는 접사 ‘새-’의 예로는 ‘새까맣다’, ‘새하얗다’ 등이 있다.

07 ‘블라인드’ 대신 만들어진 ‘가리개’는 어근 ‘가리-’에 접사 ‘-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① ‘통컵’은 어근 ‘통’과 어근 ‘컵’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③ ‘찍개’는 어근 ‘찍-’에 접사 ‘-개’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④ ‘그림말’은 어근 ‘그림’과 어근 ‘말’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⑤ ‘새활용’은 어근 ‘새’와 어근 ‘활용’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08 ‘편세권’은 ‘편의점’과 ‘역세권’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한 새말이므로, ㉠이 아닌 ㉡에 해당한다.

09 의미를 추측하기 어려운 새말을 사용하거나, 새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상대와 대화할 경우에 무분별한 새말의 사용은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0 (가)는 세대별 어휘로 청소년어와 기성세대 언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나)는 분야별 어휘로 전문어에 대해, (다)는 매체별 어휘로 인터넷 언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의 전문어는 특정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말로 명확하게 표현하여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11 <보기>에서 기성세대인 ‘아빠’는 청소년인 ‘애주’와 대화할 때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애주’는 ‘아빠’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아빠’는 대화 상대인 ‘애주’를 고려하여 ‘애주’가 이해할 만한 어휘로 말하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① ‘아빠’가 청소년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애주’가 이해할 만한 어휘로 바꾸어 말하는 것이 좋다.

② 전문어는 특정 집단에서 쓰는 말이므로 ‘아빠’와 ‘애주’의 대화와는 관련이 없다.

③, ⑤ 모든 여휘는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청소년어보다 기성세대 언어를 더욱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성세대 언어만 사라지게 되는 것 또한 아니다.

12 <보기>는 ‘생파’, ‘생선’, ‘생축’과 같은 청소년어를 주로 사용한 초대장에서 모든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한 초대장으로 바꾸어 쓴 것이다. 이와 같이 바꾸어 쓰면 청소년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도 어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초대장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3 <보기>에서 ‘학생’은 ‘윈드 스프린트’라는 체육 분야의 전문어를 사용하고 있고, ‘교장 선생님’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같은 집단 이외의 사람에게 전문어를 사용하면 소통하기 어려워지는 전문어의 특성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③, ⑤ 전문어는 해당 전문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같은 집단의 구성원끼리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소속감과 친밀감이 생긴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같은 집단 이외의 사람과 대화할 때 전문어를 사용하여 소통이 안 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

② 법률이나 의학 분야가 아닌 체육 분야의 전문어로 볼 수 있다.

14 (나)에 따르면 전문어는 해당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특정 개념을 표현한 말로, 짧은 말로도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15 <보기>의 ‘ㄱㅅ’은 ‘감사’라는 단어를 모두 쓰지 않고도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이며, ‘강추’나 ‘득템’ 또한 표현의 일부분만으로 뜻을 전달하는 인터넷 언어이다. 이는 문자를 빠르고 쉽게 입력할 수 있는 인터넷 언어의 특징을 보여 준다.

16 의사소통을 할 때는 적절하고 정확한 어휘를 사용해야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상대방이 모르는 어휘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말이 풍부해지는 것은 아니다.

4 나를 돌아보는 내 마음의 거울

01 문학으로 성장하는 우리

소단원 한눈에 보기

246~247쪽

- 1 (1) ○ (2) ○ (3) × (4) ×
- 2 (1) 소리 (2) 정우 (3) 수술 (4) 바다
- 3 (1) ○ (2) × (3) ○
- 4 (1) 가족들 (2) 소원
- 5 (1) 청각 장애인 (2) 가족 (3) 정우

제재 「나는 보리」

스스로 확인하기

250~267쪽

- (1) ○ (2) × (3) 고모 (4) 귀 (5) 축구 (6) ○ (7) ○ (8) 부정적
으로 (9) × (10) × (11) 부적 (12) 수술 (13) 은메달 (14) × (15) ×

내용 확인 문제

250~267쪽

- | | | | | | |
|------|--------|------|----------------------------------|------|--------------------------------|
| 1 ④ | 2 불꽃놀이 | 3 ⑤ | 4 ③ | 5 ② | 6 ③ |
| 7 ② | 8 ② | 9 ④ | 10 ④ | 11 ⑤ | 12 친구들과 자
유롭게 대화하고 싶기 때문이다. |
| | | 13 ② | 14 정우가 수술
을 하면 축구를 못 하기 때문이다. | 15 ① | 16 블랙아웃 |
| 17 ⑤ | | | | | |

- 1 보리는 학교 가기 전에 언덕 위에 있는 서낭당에 들러 소원을 빌고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 서낭당이 학교 가는 길이 아닌데도 일부러 들러서 소원을 비는 모습을 통해, 보리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 처음에 보리의 가족들이나 은정이 불꽃놀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리는 무표정을 하며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서낭당에서 소원을 비는 보리의 모습, 불꽃이 터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은정의 말을 통해 나중에 보리가 불꽃놀이에 가서 소원을 빌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3 외국인 상인으로부터 '나자르 본주'가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비로운 구슬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보리는 이를 구입한다. 즉 '나자르 본주'는 소원을 간절히 이루고 싶은 보리의 의지와 염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 4 가족을 잃어버리자 보리는 단오장 종합 안내소에 가서 방송을 요청하려고 하다가 포기한다. 그 이유는 청각 장애인인 가족들이 방송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 5 가족을 잃어버린 후 보리는 경찰서에서 크게 울다가 경찰관의 짜장면 이야기에 금세 울음을 그친다. 이 모습에서 보리의 어린아이다운 순수하고 천진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 6 보리는 엄마와 아빠의 손을 뚫어지게 보다가 방에 들어와서 자신의 귀를 만진다. 그 후 은정과의 대화를 통해 보리가 소리를 잃고 싶어 한다는 사실과, 보리가 가족들 사이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따라서 보리가 수어로 대화하는 엄마와 아빠의 손을 뚫어지게 보는 것은 보리가 가족들과 수어로 대화하고 싶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 7 정우는 사고 이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보리에게 이제 학교가 재미없게 느껴질 거라고 말한다. 정우는 학교에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지루하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보리는 바다에 빠지는 사고 이후 청각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잃은 척을 하고 있다.

③ 은정은 보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정우와 관련된 대화를 하며 보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④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후보 선수가 되었지만, 혼자서 연습을 하겠다는 정우의 모습에서 축구에 대한 끈기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정우가 축구에 흥미를 잃은 것은 아니다.

⑤ 보리는 정우와의 대화를 통해 정우가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일상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은정과 의 대화를 통해 가족 모두가 소리를 들을 수 있어도 대화를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된다. 보리는 이처럼 정우, 은정과 의 대화를 통해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게 된다.

- 8 은정은 정우와 관련된 대화를 할 때 보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은정은 왜 거짓말을 하는지 묻고 있을 뿐, 보리가 거짓말을 그만두도록 설득하고 있지는 않다.
- 9 보리의 가족들은 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수어로 대화한다. 이에 보리는 혼자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 10 보리는 정우가 수술을 하게 되면 축구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을 하며 청각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소리를 잃게 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표정이 어두웠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11 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을 하면서 경험한 일로, 청각 장애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게 된다. 따라서 ㉠에서 보리가 웬지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지은 이유는 청각 장애인인 정우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12 정우는 소리를 듣는 것 자체보다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기를 바라고 있다.

13 보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 가족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다. 따라서 엄마는 보리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알고도 눈감아 준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보리는 정우가 수술하면 축구를 못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정우와 가족들에게 알려면 자신이 들을 수 있다는 것, 즉 안 들리는 척했던 것이 거짓말임을 밝혀야 했다. 따라서 보리는 정우를 위해 자신이 들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③ 아빠는 보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보리를 감싸 안아 주며 가족의 사랑을 보여 주고 있다.
 ④ 고모는 정우가 수술을 받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우선 시하고 있다.
 ⑤ 정우가 "수술하면 축구 못 해?"라고 반복해서 묻는 것으로 보아 축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정우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 보리는 정우가 수술을 하면 축구를 못 하게 될까 걱정하고 있다.

15 소리가 들리지 않음에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축구팀에서 주전 선수가 된 정우의 모습을 보며 보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열심히 노력해야 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16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순간에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관객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표현 기법은 '블랙아웃'이다.

17 이 작품은 보리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소리가 들리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해 주는 가족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활동 응용 문제

268~271쪽

- 1 ① 2 ④ 3 ⑤ 4 ③ 5 ⑤

1 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릴 것 같으면서도 정우가 수술하면 축구를 못 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를 통해 보리는 정우를 아끼며, 정우의 꿈을 지켜 주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리가 정우를 위해 자신의 꿈을 희생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2 보리는 단오장에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크게 울지만, 경찰관이 짜장면 이야기를 하자 금세 울음을 그친다. 이 장면에서 보리의 순수하고 천진한 성격이 나타난다.

3 '나자르 본주'를 살 때 보리는 자신도 다른 가족들처럼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을 하며 여러 사건을 겪은 후,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음을 깨닫고 '나자르 본주'를 바다에 버린다.

4 보리는 가족들과 같아지기 위해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싶다는 소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을 하면서 청각 장애인의 고충을 알게 되고, 소리가 들리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깨달으며 성장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른 사

람의 상처를 헤아리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깨달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소리가 듣고 싶다고보다는 친구들과 대화하고 싶다는 정우의 말을 통해 정우가 소통하고 싶어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
 ② 들리든 안 들리든 똑같다는 아빠의 말에서 부모님이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
 ④ 모두 소리가 들리지만 소통하지 않는다는 은정 가족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⑤ 정우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주전 선수가 되었다는 은정 아빠의 말을 통해 장애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5 보리는 수어로 대화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소외감을 느끼며 자신도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보리는 가족들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을 하는데, 이는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므로,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문해력 키우기

273쪽

- 1 안달 2 영락없다 3 성스럽다 4 투입하다 5 흘
 가분하다 6 장담했다 7 가급적 8 활약하는 9 균형
 10 안도 11 교체 12 성장

확인 문제

275쪽

- 1 가치 2 내면화 3 감동 4 × 5 ○ 6 ×
 7 청각 장애인 가족 8 따뜻한 9 성장하는 10 가족

발전 활동 '자전거 도둑'

스스로 확인하기

276~280쪽

- (1) × (2) × (3) ○

내용 확인 문제

276~280쪽

- 1 ② 2 도둑놈 두목 3 ④ 4 ⑤ 5 ⑤

1 주인 영감은 수남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쳤다는 사실에 무릎을 치면서 통쾌해한다. 이는 자신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모습으로, 수남은 이 모습에서 주인 영감이 도덕적 양심보다 금전적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2 수남은 자전거에 채운 자물쇠를 분해하는 주인 영감의 모습이 도둑놈 두목 같아 보여 정이 떨어진다. 그리고 주인 영감의 얼굴이 누런 뚱뚱한 것을 깨닫고 메스꺼움을 느낀다.

3 돈을 벌어 오겠다고 집을 나간 수길은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물건과 돈을 훔쳐 집으로 돌아간다. 수남은 수길이 저지른 일에 대해 몹서리가 칠 정도로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으므로, 수길을 동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수남은 낮에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며 고민하고 있다.

② 수길이 돈을 벌어 온 뒤 가족들은 큰 잔치를 벌이고 싶어 했지만 수길은 험악한 얼굴을 하고 안 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수길이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가져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수길이 순경에게 붙잡힌 뒤, 수남도 어느 날 형이 그랬던 것처럼 서울 가서 돈을 벌어 오겠다고 집을 나섰다.

⑤ 수남이 서울로 갈 때 수남의 아버지는 “무슨 짓을 하든지 그저 도둑질을 하지 마라.”라고 당부하였다.

4 이 작품은 순진한 소년 수남의 모습을 통해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도시 사람들의 이기적인 태도와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있다.

5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행동이 도둑질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어른인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활동 응용 문제

281쪽

1 ⑤ 2 누런 뚱뚱

1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행동이 도둑질일지도 모른다고 고민하다가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어른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이에 수남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집을 꾸리는데, 이때 아버지의 곁에서 양심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2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 온 일을 칭찬하던 주인 영감의 얼굴빛을 ‘누런 뚱뚱’으로 인식한다. 또한 읍내 양품점에서 도둑질을 하고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날 밤의 수길의 얼굴빛을 ‘누런 뚱뚱’으로 기억한다. 즉 주인 영감과 수길의 ‘누런 뚱뚱’과도 같은 얼굴빛은 비양심성, 부도덕성을 상징한다.

참고 자료

‘수남’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한 바

수남은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주인 영감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떠나기로 결심하면서 도덕성을 회복한다. 이 소설의 작가는 이러한 수남의 모습을 통해 도덕적 양심보다 물질적 이익을 중시하던 당대의 세태를 비판하려고 했을 것이다.

소단원 평가

282~287쪽

01 ①	02 ③	03 다른 가족들처럼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04 ⑤	05 ①	06 ④	07 ③	08 ④
09 ④	10 ⑤	11 ⑤	12 ④	13 ④	14 ③		
15 ②	16 ②	17 ⑤	18 ⑤				

01 (라)에서 보리는 은정과 공책에 글자를 적는 방식으로 대화를 나눈다. 보리는 집에 있으면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며 소리를 잃고 싶다는 자신의 고민과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오답 풀이 ② 보리는 단오장에서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불꽃이 터지자 소원을 빈다. (라)로 미루어 보아, 보리의 소원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③ (가)에서 수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엄마와 아빠, 정우이며, 보리는 이를 물끄러미 응시하기만 한다.

④ 보리는 단오장에서 가족들을 잃어버리지만, 일부러 점점 멀어져 혼자 걷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라)에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소리를 내는 보리와 은정에게 경고를 하고 있을 뿐, 보리의 고민을 듣고 공감해 주지는 않는다.

02 보리는 제일 큰 불꽃이 터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은정의 말을 듣고, 불꽃놀이에 가서 소원을 빈다. 은정의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믿는 모습에서 보리의 순진하고 천진한 성격이 드러난다.

03 (가)에는 보리를 제외한 가족들이 수어로 대화하는 행복한 모습이, (라)에는 집에 있을 때 소외감을 느끼는 보리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보리의 소원은 다른 가족들처럼 자신도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싶은 보리의 소원을 적절하게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04 이 글을 읽은 독자는 (다)를 통해 정우와 같은 청각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알게 된다.

05 ‘나자르 본주’는 보리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외국인 상인에게 구입한 것이다. 여러 사건을 겪은 보리는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나자르 본주’가 더는 필요 없음을 깨닫고 바다에 던져 버리는데, 이를 통해 보리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리가 ‘나자르 본주’를 구입한 것에 가족에 대한 보리의 사랑이 영향을 주었지만, ‘나자르 본주’가 가족에 대한 보리의 사랑을 상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보리는 수어로 대화하는 엄마와 아빠의 손을 뚫어지게 보다가 혼자 방에 들어가서 귀를 만진다. 또한 (다)에서부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 하며, (라)에서는 가족들을 보고 있으면 행복해 보이고 자신만 다른 사람 같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리가 ㉠과 같이 행동한 이유는 가족들처럼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고 싶기 때문이다.

07 (나)에서 보리가 은정에게 자신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자, 은정은 보리의 비밀을 지켜 주려고 한다. 따라서 은정이 보리의 비밀을 지켜 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소리가 안 들리는 척 하던 보리는 (다)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밝힌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질문을 떠올릴 수 있다.
 ② 보리는 정우의 수술을 막기 위해 자신이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으므로, 왜 수술하지 않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질문을 떠올릴 수 있다.
 ④ (다)에서 엄마와 아빠는 보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의 마음을 말하고 있으므로,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지에 대한 질문을 떠올릴 수 있다.
 ⑤ 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을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질문을 떠올릴 수 있다.

08 (다)에서 엄마와 아빠는 보리가 소리를 듣지 못해 슬퍼하면서도 보리의 수어 실력을 칭찬한다. 이를 통해 보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09 (다)에서 보리는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 정우가 수술을 받으면 축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는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 정우의 꿈을 지켜 주기 위함이다.

10 (마)에서 은정 아빠는 정우가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주전이 된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우를 주전으로 되돌리기 위해 감독을 설득하는 은정 아빠의 모습은 이 글에서 찾아 볼 수 없다.

11 보리는 정우에게 계속해서 수술을 하고 싶은지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다. 그 이유는 (라)에 나타나는데, 보리는 정우가 수술을 하면 축구를 하지 못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즉 보리는 축구를 무엇보다 좋아하는 정우가 수술 후에 축구를 하지 못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다.

12 보리가 참았던 눈물을 터트린 것은 보리 혼자서만 소리가 들려서 가족들에게 소외감을 느꼈을 때부터 쌓인 서운함, 가족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안도감과 미안함, 그리고 정우의 꿈을 지켜 주기 위해 용기를 내기까지의 긴장감 등 다양한 감정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정우는 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하면 축구를 못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며, 축구를 못 하게 된다고 하면 수술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④는 적절하지 않다.

13 이 글에서 보리는 청각 장애인인 가족들 사이에서 자신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이유로 소외감을 느낀다. 보리는 가족들과 같아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기도 하고, 소리가 안 들리는 척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소리가 들리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가족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성장한다. 즉 이 글은 보리가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며 성장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

다.

- 오답 풀이** ① 나자르 본주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싶다는 보리의 소원을 상징하며 보리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그러나 나자르 본주가 갈등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② 보리는 청각 장애인을 향한 일상의 차별을 느끼지만, 사회적 편견에 맞서며 이를 극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보리와 정우 사이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으며 소리가 들리는 것에 대한 보리의 내적 갈등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⑤ 보리는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물이다. 청각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는 보리는 일시적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하며 일상의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 글이 일상생활 속 차별이 빈번한 현실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14 이 글은 청각 장애가 있는 다른 가족들처럼 자신도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한 소녀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일상에 있을 법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므로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5 보리는 다른 가족들과 똑같이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든 그렇지 않든 서로를 사랑해 주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 소리가 들리든 들리지 않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16 (나)에서 수남은 자신과 같은 아이에게 간악하게 굴던 신사를 골려 준 것은 나쁜 일은 아니라며 정당화하고 있다. 즉 신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마워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라)에서 수남은 도둑질을 한 형에 대해 “그 도둑놈과 형제간이란 게 두고두고 생각해도 몸서리가 쫓다.”라고 하며 혐오감을 드러낸다.
 ③ 수남은 자신의 행동이 도둑질일지도 모른다고 고민하다가 자신을 도덕적으로 바로잡아 줄 어른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이 과정에서 수남은 아버지를 떠올리고 그리워한다.
 ④ (가)에서 수남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칭찬하는 주인 영감님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⑤ 수남은 자신의 행동이 도둑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핏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며 안절부절못하기도 한다. 즉 수남은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았는지 고민하면서 자책하고 있다.

17 수남은 자전거를 가지고 도망친 행동이 도둑질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도덕적으로 바로잡아 줄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결심을 굳힌 수남은 내적 갈등을 말끔히 해소하며 도덕성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

18 이 작품은 수남이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았는지 되돌아보며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를 읽은 독자는 수남이 성장한 모습에 비추어 본인을 평가해 보고, 독자 자신이 실수하고 반성했던 경험을 떠올려 볼 수 있다.

02 진솔하게 그린 나의 마음

소단원 한눈에 보기

290~291쪽

- 1 (1) 마음 (2) 독자
- 2 (1) ○ (2) ○ (3) ×
- 3 (1) 개요 (2) 목적
- 4 (1) ○ (2) × (3) ○
- 5 (1) 철쭉나무 (2) 이산가족
- 6 (1) 신행민 (2) 사진 (3) 증조할머니

제재 「할아버지의 엄마 나무」

스스로 확인하기

294~295쪽

- (1) ○ (2) 엄마

내용 확인 문제

294~295쪽

- 1 ④ 2 철쭉나무

- 1 '할아버지가 가끔씩 증조할머니의 사진을 꺼내어 물끄러미 들여다보시는 모습을 볼 때면'에서 할아버지가 증조할머니의 사진을 꺼내 보는 모습을 글쓴이가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와 함께 화단에 철쭉을 심은 사람은 삼촌이 아닌 할아버지이다.
 ② 통 속의 흙을 만지며 눈물을 흘리던 것은 삼촌이 아닌 할아버지이다.
 ③ 황해도 연백의 흙을 가져온 것은 할아버지와 글쓴이가 아니라 삼촌이다.
 ⑤ 철쭉꽃은 내년 봄에 필 것으로, 글쓴이는 할아버지가 이를 보면서 위안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
- 2 글쓴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황해도 연백에서 가져온 흙으로 증조할머니가 좋아한 철쭉나무를 심고, 이 나무의 이름을 '엄마'라고 짓기로 한다. 철쭉나무는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나무이다.

참고 자료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의 구성 요소

- 의미 있는 경험을 글감으로 정해야 한다.
- 참신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활동 응용 문제

296~303쪽

- 1 ④ 2 ① 3 ⑤ 4 ⑤ 5 ①

- 1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의 글감을 고를 때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인지, 독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지, 독자에게 감동이나 깨달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2 '새로 산 물건의 작동 원리'는 진술한 정서보다는 사실적 정보를 주로 담게 될 것이므로, 설명하는 글의 글감이 되기에 적절하다.
- 3 글의 내용을 조직할 때는 글에 담을 내용을 배열하여 전체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글에 담을 내용을 정리한 후에는 글의 개요를 작성한다. 독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글감을 검토하는 것은 글을 쓰기 위해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내용에 해당한다.
- 4 글을 완성하기 전 고쳐 쓸 때는 자신의 경험이나 정서 등을 과장하지 않고 진솔하게 표현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 5 스토리보드는 주요 장면의 구도, 대사, 배경 등을 미리 정리한 것으로, 영상을 만들 때 활용한다. 따라서 자신이 쓴 글을 편지 형식으로 바꾸어 쓸 때는 스토리보드 작성을 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영상 언어의 특성과 구성 요소

영상 언어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특성이 있는데, 그 구성 요소에는 시각 이미지, 자막, 대사, 효과음, 음악 등이 있다.

시각적 요소	• 시각 이미지: 카메라로 촬영한 화면. 카메라와 대상의 거리, 카메라의 각도 등을 조절하여 표현함. • 자막: 영상을 보는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나타내는 글자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청자에게 전하려는 바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사용함.
청각적 요소	• 대사: 등장인물의 말로, 현재 상황과 감정 등을 전달함. • 효과음: 장면을 실감 나게 보여 주기 위하여 넣는 소리로,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 음악: 장면의 분위기나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함.

문해력 키우기

305쪽

- 1 경험 2 정서 3 깨달음 4 글감 5 ○ 6 ○
7 × 8 × 9 ㉠ 10 ㉡ 11 ㉢ 12 ㉣

확인 문제

307쪽

- 1 × 2 ○ 3 ○ 4 독자 5 구체적
6 개요 7 글쓴이 8 ㉠ 9 ㉡ 10 ㉢

발전 활동 노래 가사 만들기

활동 응용 문제

308~309쪽

- 1 ⑤ 2 ④ 3 ⑤

- 1 노래 가사는 리듬에 맞추어야 하므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길고 자세하게 서술하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노래 가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사를 붙이고 싶은 노래를 선정해야 한다.
② 노래를 통해 진술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노래 가사로 붙일 만한 자신의 의미 있는 경험을 떠올려야 한다.
③ 노래 가사를 쓸 때는 노래에 맞아야 하고, 진술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
④ 경험을 노래로 만들고 싶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에 적절한 가사가 떠오를 수 있다.

- 2 노래 가사는 리듬감이 있고 시적인 표현이 주가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노래 가사를 만드는 것이 좋다.

- 3 자신의 경험을 노래 가사로 쓸 때는 리듬에 맞아야 하므로 시적인 표현을 허용한다. 노래 가사 형식의 특징을 고려할 때 육하원칙에 따라 전개하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육하원칙

육하원칙은 주로 기사문을 쓸 때 지켜야 하는 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말한다. 이렇게 육하원칙을 지켜서 쓰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읽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다.

소단원 평가

310~313쪽

- 01 ③ 02 ④ 03 ⑤ 04 ④ 05 '나'는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06 ④
07 ② 08 ③ 09 ③ 10 ④ 11 ④ 12 ⑤
13 ④ 14 ② 15 ②

- 01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할아버지와 경험 토대로 쓴 수필이다. 수필은 소설과 달리 글 속의 '나'가 글쓴이 자신으로, 글쓴이의 개성과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수필은 형식이 자유로우며,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쓸 수 있다.

- 02 이 글은 글쓴이가 실향민인 할아버지의 사연을 알게 된 뒤 할아버지의 슬픔에 공감했던 일을 진솔하게 글로 표현하고 있다. 성인이 된 글쓴이가 과거 경험을 회상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할아버지의 슬픔에 공감했던 일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② 이 글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휘로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 있다.
③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할아버지와 경험 토대로 구체적으로 쓰고 있다.
⑤ 글쓴이는 '흙'을 계기로 할아버지가 실향민이 된 사연을 알게 된 후 겪은 할아버지와 경험 토대로 서술하고 있다.

- 03 (마)에서 '나'는 할아버지와 심은 철쭉나무에서 예쁜 꽃이 피어나 할아버지가 위안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글쓴이의 소망을 나타낼 뿐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내용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글쓴이는 삼촌이 흙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엄마에게 전해 들었다.
② (가)에서 글쓴이는 할아버지의 방에서 증조할머니의 사진을 보았다.
③ (라)에서 글쓴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삼촌이 가져온 흙에 철쭉나무를 심고 '엄마'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④ (다)에서 글쓴이는 할아버지가 통 속의 흙을 만지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

- 04 ④에는 할아버지의 슬픔에 공감하는 글쓴이의 진솔한 정서가 드러나 있으나, 나머지는 글쓴이가 직접 경험하거나 할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알게 된 내용에 해당한다.

- 05 '나'는 할아버지와 철쭉나무를 심고 그 나무의 이름을 '엄마'라고 짓자고 말한다. 이는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나'가 할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이다.

평가 기준	확인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게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 06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할아버지와 경험 토대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여 쓴 수필로, 가족을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냈다.

07 내용 조직 과정에서는 글에 쓰지 않아도 될 내용을 삭제하거나 독자의 이해를 도울 만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ㄴ과 ㄹ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으로, 글쓴이가 글의 주제에 어긋나거나, 글에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 판단하여 삭제한 내용에 해당한다.

08 철쭉나무에 대한 설명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글에 쓰지 않아도 될 내용이다. 따라서 이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㉔에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은 표현은 없으며, 할아버지가 끌어안고 있는 대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바르게 고쳐 쓰기보다는 무엇을 끌어안고 계셨다는 것인지 그 대상을 밝혀야 한다.

오답 풀이 ① ㉔은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나고 독자의 관심을 끌 만한 제목으로 고쳐 쓸 수 있다.
 ② ㉔은 '열세 살'로 띄어 써야 한다.
 ④ ㉔에서는 흠을 만지고 계산 할아버지를 봤을 때의 글쓴이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내용을 쓸 수 있다.
 ⑤ ㉔에서는 단순히 기다려진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할아버지의 아픔이 달래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도록 고쳐 쓸 수 있다.

10 '나'는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다. 또 할아버지와 심은 철쭉나무의 이름을 '엄마'라고 지으며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와 할아버지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할아버지와 이별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며, 할아버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③ 철쭉꽃을 좋아하는 것은 증조할머니이며, 글쓴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철쭉나무를 심는다.
 ⑤ 할아버지의 엄마인 증조할머니와의 재회를 기원하는 마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11 ㉔은 할아버지의 슬픔에 공감하는 글쓴이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대목으로, 글쓴이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글쓴이의 진솔한 감정에 공감하며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12 <보기>는 책을 꾸준히 읽는 습관을 갖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습관을 갖게 도와준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책을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책을 많이 읽을 것을 설득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13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쓸 때는,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던 경험 중 자신의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골라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일상적인 경험이라도 감동과 깨달음을 준 경험이라면 글감이 될 수 있으며,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된다.
 ② 상상력을 발휘하여 창작한 이야기가 아닌 자신이 실제 겪은 일을 바탕으로 글감을 마련한다.
 ③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쓸 때는 솔직하고 진실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고른다.

⑤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글감은 주장하는 글을 쓸 때 글감을 고르는 방법에 해당한다.

14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개요를 작성할 때는, 먼저 글에 담을 내용을 배열하여 전체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주제에서 어긋나는 내용은 삭제하고, 독자의 이해를 도울 만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글에 담을 내용이 정리되면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개요를 작성한다.

15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쓰면,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대단원 평가

320~327쪽

01 ⑤	02 ③	03 ②	04 ④	05 나자르 본주
06 ③	07 ②	08 ①	09 ⑤	10 ④
11 ⑤	12 ④	13 ③	14 ②	15 ②
16 ③	17 ⑤	18 ④	19 ①	20 ③
21 ④	22 ①	23 ①	24 ④	

01 이 글은 인물의 성장을 다룬 시나리오이다. 이와 같은 글을 감상할 때는 등장인물의 삶을 통해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이를 내면화하며 읽는다.

오답 풀이 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읽는 것은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의 태도에 해당한다.
 ② 이 글은 영화나 드라마의 상영을 목적으로 쓴 대본인 시나리오이다. 무대 위에서 상연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읽는 것은 희곡을 감상하는 태도에 해당한다.
 ③ 시나리오는 사실이 아닌 허구의 이야기이므로 글쓴이의 실제 경험과 일치하는지 검증하면서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메모하며 읽는 것은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의 태도에 해당한다.

02 외국인 상인은 보리에게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나자르 본주를 판매하고 있을 뿐, 보리의 고민을 전혀 듣거나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가)에서 보리는 수어로 대화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또한 (바)에서 가족들 중 홀로 소리를 들을 수 있기에 보리가 느끼는 소외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보리가 자신을 제외한 가족들이 수어로 화기에 애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보리가 느끼는 소외감에 공감할 수 있다.

04 보리는 가족들 중에서 홀로 소리를 들을 수 있기에 소외감을 느끼며 자신도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불꽃 중에 제일 큰 게 터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라는 은정의 말을 들은 보리는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만, (마)에서는 불꽃놀이를 보면서 손을 맞대고 소원을 빈다. 따라서 보리가 은정의 이야기를 믿지 않은 것은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싶어 하는 소원과과는 관련이 없는 행동이다.

오답 풀이 ① 보리는 학교 가는 길이 아니지만 소원을 빌려고 일부러 서당당에 다녀간다. 이는 소원을 이루고 싶은 보리의 간절함을 드러낸다.

② 보리는 외국인 상인에게 나자르 본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하며 나자르 본주를 산다.

③ 은정의 말을 들은 보리는 큰 불꽃이 터질 때 소원을 빈다. 이때 보리가 비는 소원은 소리를 잃게 해 달라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⑤ 보리는 은정에게 집에 있으면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고 한다. 이는 보리가 소리를 잃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된 이유에 해당한다.

05 보리는 소리를 잃고 싶다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튀르키예 부적인 나자르 본주를 구입한다. 나자르 본주는 가족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면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는 보리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06 ㉠에서 보리가 문득 아빠를 떠올리는 것은 물건을 구경하는데 정신이 팔려 가족과 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한 보리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나자르 본주를 구입한 것으로, 이는 아빠를 위한 선물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보리는 가족들 중에서 홀로 소리를 들을 수 있기에 가족들과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보리가 수어로 대화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② 서당당에서 소원을 비는 행동, 나자르 본주를 사는 행동, 불꽃놀이에서 소원을 비는 행동 등은 모두 어린아이다운 보리의 순수한 면모를 보여 주는 행동이다.

④ 보리가 빌고 있는 소원의 내용은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보리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므로, 독자가 그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보리는 모두가 소리를 들을 수 있어도 서로 소통하지 않는 은정의 가족을 보며, 중요한 것은 소통하려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

07 독자는 이 글을 읽으며 미처 알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보리가 제일 큰 불꽃이 터질 때 소원을 비는 것은 보리의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을 보여 주는 대목일 뿐, 독자가 알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08 (마)에서 은정은 보리가 소리를 잃고 싶은 이유에 대해 묻고 있을 뿐, 소리가 안 들리는 척 거짓말을 하는 보리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 보리는 단오장 종합 안내소를 찾아가지만, 방송을 해도 청각 장애인인 가족들이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포기한다.

③ (라)에서 정우가 축구할 때 빼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마)에서 보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족들과 자신이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⑤ (바)에서 엄마와 아빠는 소리를 잃은 보리를 보고 처음엔 슬퍼지만 시간이 지나 괜찮다고 말한다. 또한 보리의 수어가 늘고 있는 것을 언급하는데, 이를 통해 엄마와 아빠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9 바다에 빠지는 사고 이후 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가족들과 수어로 대화한다. 이를 통해 보리의 고민은 일시적으로 해결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을 하면서 또 다른 사건을 겪고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된다.

10 보리는 가족들과 같아지기 위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와 축구팀에서 정우가 청각 장애인으로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소리를 잃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1 (바)에서 엄마와 아빠는 정우가 들리든 안 들리든 똑같다고 말한다. 보리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변함없이 정우와 보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있는 그대로의 가족을 사랑해야 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12 청각 장애인인 가족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낀 보리는 자신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 거짓말을 한다. 이처럼 가족들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을 하던 중, 청각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보리가 청각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을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척하게 된 보리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보리의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적절한 이유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자신이 보리의 입장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할지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리의 행동을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3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등장인물의 삶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다양한 삶의 모습과 방식을 접하며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청각 장애인인 보리의 가족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보리 등 다양한 인물들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

② 보리가 가족의 사랑을 깨닫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삶이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④ 소재의 의미 등 작품의 내적 구조를 생각하며 작품을 읽으면 그 의미를 해석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⑤ 청각 장애인이 일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평소에는 알지 못하고 지내지만, 작품을 통해 이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14 소리를 잃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보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성장하여 나자르 본주를 바다에 버린다. 이는 나자르 본주를 통해 주인공 보리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성장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15 보리는 정우가 수술을 하면 축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된다. 이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정우의 꿈을 지켜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16 다양한 사건을 겪은 보리는 가족과 소통하려는 마음이 중요할 뿐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후 보리는 (마)에서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나자르 본주 부적을 바다에 버리는데, 이는 더 이상 소원이 필요 없어진 보리의 성장을 보여 주는 것이다.

17 정우는 수술을 받고 소리를 듣게 되는 대신, 축구를 선택하고 결승전에 출전한다. 따라서 정우가 수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구 선수의 꿈을 포기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8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 온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또 반성하기도 하면서 성격과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았는지 고민하면서 내적 갈등에 빠진다.

②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내적 갈등을 느끼다가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후 후련함을 느낀다. 이 글은 이처럼 주인공의 심리가 변화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③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현재의 사건으로 인해 형이 도둑질로 잡혀 가고, 아버지가 몸져누웠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⑤ 이 소설은 순진한 소년 수남의 눈을 통해 물질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도시인들의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있다.

19 독자는 수남이 했던 실수와 수남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평가해 보면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되돌아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수남과 주인공 영감의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자전거는 이 소설의 주요 소재이나, 자전거에 대해 새로 알게 될 만한 정보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④ 수남이 집을 꾸리며 후련해지는 모습은 알 수 있으나, 이는 갈등이 모두 해소된 단계이므로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예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⑤ 수남은 도둑질한 형의 행동을 혐오하고 있으므로 수남이 형의 행동에 공감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0 이 글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수필에 해당한다. 수필은 일상생활 속에서 얻은 생각이나 느낌을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글이다. 인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해소 과정을 주로 다루는 것은 소설이나 시나리오, 희곡에 해당하며, 수필을 쓸 때 이를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1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쓰면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을 솔직하게 표현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되거나 새롭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독자에게 진솔한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 정서를 과장하지 않고 진솔하게 표현해야 하므로, 일상적인 경험을 특별한 경험처럼 꾸며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2 이 글의 '나'는 이산가족이 된 할아버지가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공감하며 함께 슬퍼한다.

23 이 글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글이다. 이와 같은 글을 읽을 때는 글쓴이의 경험이나 정서에 공감하며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글쓴이가 설명하는 대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설명하는 글을 읽는 태도에 해당한다.

③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은 주장하는 글을 읽는 태도에 해당한다.

④ 갈등을 중심으로 읽는 것은 소설이나 시나리오, 희곡을 읽는 태도에 해당한다.

⑤ 다양한 표현 방법과 운율을 형성한 방식에 주목하여 읽는 것은 시를 읽는 태도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글의 갈래에 따른 읽기 방법

문학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봄. • 시: 표현 방법을 파악하고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를 이해함. • 소설: 인물과 사건을 파악하고, 갈등의 진행 과정을 이해함.
비문학	글이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정보와 주장을 바탕으로 중심 내용을 정리함. • 설명하는 글: 설명 대상과 설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함. • 주장하는 글: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와 그 근거를 파악하고,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함.

24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 줄 때는 경쾌한 느낌을 주는 음악이 아닌 쓸쓸하거나 슬픈 느낌을 주는 음악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글의 맥락상 적절하다.

01 나자르 본주를 살 때는 자신도 다른 가족들처럼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자르 본주를 버릴 때는 가족의 사랑을 깨닫고 부적이 없어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02 청각 장애인인 가족들 사이에서 혼자만 귀가 들린다는 사실에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03 보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 보리의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한다.

04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05 수남은 자전거를 훔쳤고, 주인 영감은 이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칭찬한다. 이에 수남은 주인 영감의 부도덕성을 느끼고 있다.

06 수남이 한 결심은 짐을 꾸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향에는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 줄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다.

07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08 <보기>는 ㉠과 달리 할아버지의 아픔이 달래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따라서 독자에게 감동이 전해질 것이다.

01 보리는 자신도 다른 가족들처럼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자르 본주를 산다. 하지만 소리가 들리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서로를 아끼는 가족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소원이 필요 없어진다. 이에 보리는 나자르 본주를 바다에 버리고 후련해한다.

평가 기준	확인
보리가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느꼈던 생각의 변화를 적절하게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02 이 글의 (가)에서 보리는 수어로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가족들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또한 (나)에서는 나자르 본주 부적을 구입하고, 불꽃이 터질 때 소원을 빈다. <보기>에서는 수어로 대화하는 엄마와 아빠를 쳐다보다가 자신의 귀를 만지고, 친구인 은정에게 '집에 있으면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보리가 귀가 들리지 않는 척했던 이유는 가족들 중 혼자만 귀가 들린다는 사실에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가족들과 달리 혼자만 귀가 들리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다.	☐
은정과 대화를 바탕으로 가족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다.	☐

03 [A]에서 엄마와 아빠는 보리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자 처음엔 많이 슬퍼했지만 시간이 지나 괜찮아졌다고 말하고,

보리의 수어 실력이 좋아졌음을 칭찬한다. 이를 통해 엄마와 아빠는 소리가 들리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리를 사랑하며 보리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엄마와 아빠가 보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한다는 내용을 썼다.	☐
엄마와 아빠가 보리의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한다는 내용을 썼다.	☐

04 보리는 가족들과 똑같아지기 위해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에서 아빠는 정우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며, 있는 그대로의 가족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아 말하고 있다. 아빠의 이 말은 후에 보리가 자신의 소원이 더 이상 필요 없음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평가 기준	확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적절하게 썼다.	☐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에 대해 적절하게 썼다.	☐

05 주인 영감은 자전거를 훔친 수남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칭찬한다. 수남은 자신을 칭찬하는 주인 영감의 얼굴이 누런 뚱뚱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는 수남이 주인 영감의 부도덕성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누런 뚱뚱은 부도덕성을 상징하며 수남은 부도덕한 주인 영감에게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수남의 행동과 그에 대한 주인 영감의 반응을 적절하게 썼다.	☐
수남이 주인 영감의 부도덕성을 느꼈다는 내용을 썼다.	☐

06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행동이 도둑질일지도 모른다고 고민하면서 내적 갈등에 빠진다. 이후 수남은 내적 갈등을 거쳐 도덕적으로 자신을 견제해 줄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이는 수남을 둘러싼 부도덕성이 말끔히 해소되고, 수남이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도덕성을 회복하였음을 보여 준다.

평가 기준	확인
수남이 한 결심과 그 이유에 대해 적절하게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07 '나'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할아버지가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할 때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있다. 이는 '나'가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할아버지가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적절하게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 08 ㉔의 '그날이 기다려진다.'라는 표현을 <보기>에서는 할아버지의 아픔이 달래지기를 바라는 진솔한 마음을 담아 보다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글쓴이의 진솔한 정서를 담은 표현이므로 독자에게 감동이 전해질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㉔과 비교되는 <보기>의 특징과 효과를 적절하게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한 걸음 더 고득점 문제

332~335쪽

01 ④ 02 ③ 03 ④ 04 ② 05 ③ 06 ⑤
07 ⑤ 08 ④ 09 ③

- 01 정우는 청각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혼자서라도 축구 연습을 하며 노력한다. <보기>의 오일러는 시각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열심히 노력하여 수학의 역사상 가장 많은 논문을 써 냈다. 따라서 이 둘은 모두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 02 (가)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보 선수가 된 정우의 모습 이, (나)에는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주전이 된 정우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약조건에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깨달음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힘든 상황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다.
- 03 주인 영감은 수남이 자전거를 가지고 도망쳤음에도 그의 잘못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고 통쾌해한다. 이를 미루어 보아 주인 영감은 수남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수 있는 어른 이 아니다. 반면 아버지는 수남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수 있는 어른으로서 수남이 고향으로 떠날 것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이다.
- 04 <보기>의 '나'는 자전거를 가지고 도망친 수남이 잘못을 반성하고 도덕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자신이 했던 실수와 수남이 했던 실수를 비교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보기>의 '나'는 수남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③ 수남은 자전거를 훔친 사건으로 인해 내적 갈등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후 갈등이 해소된다. 따라서 수남이 고난을 해결한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보기>의 '나'도 이로 인한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④ <보기>의 '나'는 수남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를 대입한 것이 아니라, 수남과 유사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⑤ <보기>의 '나'는 수남의 성격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 05 (가)는 인물의 성장을 다룬 시나리오이며, (나)는 인물의 성장을 다룬 소설이다. 시나리오와 소설은 모두 작가가 만들어 낸 허구의 이야기로서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여 쓴 글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보리, 정우와 같은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② (가)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상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본이다. 따라서 무대 위에서 상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희곡에 비해 시공간적 배경에 대한 제약이 적다.
④ (나)는 자전거를 가지고 도망친 수남이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내부에 도사린 부도덕성에 갈등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⑤ (가)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싶은 마음으로 내적 갈등을 겪던 보리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나)는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수남이 내적 갈등을 겪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후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 06 ㉔은 보리의 표정을 통해 청각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는 보리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㉔은 얼굴이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나는 수남의 겉모습을 통해 수남의 내적 갈등이 모두 해소되고 도덕성이 회복되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07 (가)에서 삼촌과 할아버지가 '통 속의 흙'을 보며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삼촌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나, 이로 인해 글쓴이가 더 큰 슬픔을 느끼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통 속의 흙'은 황해도 연백에서 가져온 흙으로, 이산가족인 할아버지가 고향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귀한 존재였을 것이다.
② (나)에서 할아버지는 증조할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
③ (다)에서 글쓴이는 철쭉나무의 이름을 '엄마'라고 지어 주며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며 할아버지를 위로하고 있다.
④ (나)를 통해 '나'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생각해 본 적 없지만 할아버지가 가족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공감했음을 알 수 있다.

- 08 이 글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수필로서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을 지녔으며 글쓴이와 독자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자신의 삶과 경험을 글감으로 하고 있으므로 글쓴이가 상상하여 쓴 글이 아니다.

- 09 내용을 조직할 때는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 강조하고 싶은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글에서 제시할 순서를 정해야 한다. 이때 주제에서 어긋나는 내용은 없는지,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를 중심으로 점검할 수 있다. 따라서 글의 내용을 떠오르는 순서대로 배열하여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틀린 문제

나만의 정리